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공동 주최
연구발표회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연구

일정: 2006. 12. 1.(금) 13: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101호

주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센터

교육인적자원부

◆ 행사 일정 ◆

♣ 등록

13:00-13:30 참석자 등록

♣ 개회식 : (사회: 윤희원)

13:30 개회 및 인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장 조승제)

♣ 1부 : (사회: 박상철)

13:40-14:00 기조 강연 :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과 교육방향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14:00-14:20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서울대 국어교육과 윤희원)

14:20-14:50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임준희)

♣ 중간휴식

♣ 2부 : (사회: 윤희원)

15:00-15:30 다문화가정 상담시 각종 상담 기법
(전주교대 국어교육과 권순희)

15:30-16:00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 실태
(서울교대 교육학과 박상철)

16:00-16:30 다문화 시대의 자녀 교육 - 독일의 한독가정의 경우
(서울대 독어교육과 성상환)

16:30-17:00 질의 응답

♣ 폐회

◆ 목 차 ◆

<제1부>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과 교육방향	1
/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다문화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7
/ 윤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 방향	19
/ 임준희 (교육인적자원부)	

<제2부>

다문화 가정 상담시 각종 상담 기법	21
/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 실태	51
/ 박상철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 시대의 자녀 교육 -독일의 한독가정의 경우-	79
/ 성상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과 교육방향

조영달(서울대학교 교수)

1.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최근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 조사연구¹⁾에 따르면 2005년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신고의 13.6%(43,121건)이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급증하여 2005년에는 345, 679명에 이르고 있다. 새터민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민족적 문화적 혼재현상은 한국사회가 개방화하고 경제규모 역시 세계 10위권을 넘나들면서 일어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하여 우리 사회의 빠른 다양화는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사고에 좀 더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 다문화화에 따른 교육문제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 혼란 및 이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현상이 심각해졌다거나, 2)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1)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외(2006),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정책과제,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정책과제

들의 학교교육 실패, 그리고 학교제도에 수용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
인 근로자 자녀들('05년 통계, 8000명)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거나, 3)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학교성적, 교우관
계, 언어 등) 등은 이러한 문제를 대변하는 것들이다.

3.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다문화교육에 대하여는 여러 다양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자들은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 및 여러 사회 계층 출신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평등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²⁾. 이러한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1) 인권의 측면에서 다문화 배경 학생 개인에게는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 사회 전체로도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케 할 수 있으며, 3) 나아가 한국 사회에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이 섞임으로서 더욱 더욱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문화교육의 흐름

1) 이론의 흐름

2) James A. Banks(1999),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Edited by J.A.Banks: Jossey-Bass, San-Francisco) pp.3-24.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이론이나 실천의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 하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흐름이다. 흔히 회자되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은 이에 해당한다. 즉, 용광로를 거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은 그 사회의 주류문화에 동화되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나 민족 상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간에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3) 최근 들어 민족이나 인종을 이루는 각 집단은 그 나름의 가치관과 지식의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회 역시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볼(salad bowl)”³⁾에는 각 각의 야채가 그 자체로 접시에 담겨 있지만 같이 있어 더욱 야채 맛을 나게 하는 것과 같다.

2) 교육방향의 변화

그런데,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면서 교육의 과정(過程)에서 다른 민족과 인종 및 다른 문화를 다루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⁴⁾. 수업 내용에서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

3) Argy Araboglou(1996),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spects for Our Schools*, Critical Issues in Teaching Social Studies(Edited by B.G Massialas & R.F. Allen; Wadsworth Pub. Co., London) pp.253-284.

4) James A. Banks, *ibid*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 등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형성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욱 민주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주류문화에 진입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그것이 단순한 문화결핍이 아니라 그들 문화의 속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지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들은 인권과 교육의 평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5.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노력과 지향

1) 다문화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된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어왔다⁵⁾. 예를 들어, (1)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상담이나 한국어/전통문화 교육(예,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 및 학습 지원(예, 학부모 사랑방 봉사, 글로벌 에티켓 교재)이 이루어져 왔으며⁶⁾, (2)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에 대하여는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외국인노동자센터나 노동자의 집(안산, 성남, 부천, 부산 등) 및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특별학급이 설치되기도 하였으며(경기도 교육청) 대안

5) 외국의 경우에도 우선교육지대(프랑스), 가족 프로젝트(독일), 니케이진(일본)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전북교육청의 KOSIAN EDU PLAN의 수립 시행 등을 들 수 있다(다음의 <http://www.jbe.go.kr/JBEWAO/Index.aspx> 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음).

학교의 설립(광주의국인근로자문화센터의 추진 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NGOs)를 중심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과 의료 법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3) 그리고 새터민 가정 자녀를 위해서도 생활공동체 성격의 대안학교나 방과후 학습보충 프로그램의 운영 및 특성화고교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2) 한국 다문화교육의 실천 지향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실제로 대면하는 교육현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교육의 소외를 막고 다양한 문화의 인정과 포용으로 우리 사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하여는 학교사회에서 교장·교감선생님, 교사, 학부모 및 관련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현장교육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공공부분 및 학교와 민간의 다문화교육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종합적 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 기구와 다문화교육 연구·연수 센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관리단위를 개인에서 가족화하고, 다문화 교육 관계망을 형성하는 문제나, 학교/교육과정/교과서 차원의 다문화적 고려, 다문화교육의 정보화, 등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한국사회는 사회적 통합에 더욱 다가서며, 세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문화자녀 교육의 이해와 장학

윤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I. 서론

II.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뒤처지는 아이들

III.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IV. 새터민 가정의 자녀: 탈락하는 아이들

V.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외국의 사례

VI.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학

I. 서론

□ 최근 들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로서, 이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진단과 처방에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함.

Ⅱ.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뒤처지는 아이들—

1.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자녀의 교육이 문제이다.

- 농어촌,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

- 2005년 8월, 여성결혼이민자는 총 61,478명으로 파악됨. (한국계 중국인 26,478명, 중국 11,602명, 베트남 5,993명, 일본 7,163명, 필리핀 3,771명 등)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본국에서는 대부분 중산층 여성들로서, 본인과 가족들이 더 잘살기 위하여 한국에 시집온 것으로 분석됨.
 -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절반에 가까우며, 전문대 이상도 22%에 이룸.
 -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1 정도임.
 -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04년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사는 남자 1,81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함. 이는 농어촌지역 전체 결혼 건수(6,629건)의 27.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총각 4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함. (중국이 879명, 베트남이 560명, 필리핀이 195명 등)

2.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시작하다.

- 1997년 국적법 개정 이후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며,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짐.

- O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이 붐을 일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함.
- O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지역별로 학생수는 경기(24.2%), 서울(11.2%), 전남(9.6%), 전북(8.4%), 경북(7.6%)의 순으로 초 87.1%, 중 9.5%, 고 3.4%로 아 직은 초등학생이 대부분임.

3.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다.

-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함.
 - O 일상대화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 부족
- 정체성의 혼란과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 O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우리 나라 초등학생의 13.4%와 비슷한 수준)

※ 자료: 설동훈 외, 2005.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Ⅲ.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방치되는 아이들—

1.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 국내외국인(불법체류포함) 중 취학연령(7세~18세)자는 17,287명으로 추정
 -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 (외국인학교 재학생 제외)은 약 9,500명 중, 재학생은 1,574명으로. 이들 중 62.3%가 수도권지역에서 취학 중임.

- 2003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①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권리, ② 양육 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인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국적 취득의 권리, 휴식·여가 및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⑥교육받을 권리,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 만 7~12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관할구청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초등학교 입학, 졸업 가능.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청강생 신분으로 우리 나라 공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발국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학교 안 1,500여명의 아이들

- 학교 안 1,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역시
 -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하며,
 -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며,
 -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함.

- 심각한 언어 문제
 - 외국인 아동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56%이며, 이로 인한 낮은 성적 16%, 따돌림, 구타, 교우 문제 20%, 생활 수준의 차이 4%를 차지함.
- 모국에 대한 긍지 상실
- 나이와 맞지 않는 학년 배정의 문제
 - 학업성취도나 언어 수준에 따라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경우, 자존심이 상하거나 좌절감, 의욕상실 등으로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음.

3. 학교 밖 8,000여명의 아이들

- 8,000여명의 학교 밖 외국인 청소년 중에서 3,000명 이상이 현재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4.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 자녀들의 귀국에 대비해 모국어 교육에 힘쓰는 부모들이 많음.
 - ‘교육을 위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으며 부모 중 51.1%가 자녀가 대학에, 19.3%가 고등학교에, 14.8%가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바랍.

IV. 새터민 가정의 자녀

—탈락하는 아이들—

1. 빈곤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한다.

□ 새터민 가정의 31.7%가 무직이며, 단순 노무자 10%, 장치기계 조작 23.3%로,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2. 취학률이 낮다.

새터민 자녀 취학 현황(2004년 9월 현재)					
구분	초(6~12)	중(13~15)	고(16~20)	평생교육시설	계
취학대상자	223	167	411		801
재학생	191	82	27	3	303
취학률(%)	85.7	49.1	6.6		37.8
평균취학률	98.8	94.3	92.2		

※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3. 중도탈락률이 높다.

최근 6년간 입학생 대비 중도탈락 현황(1999~2004)					
구분	초(6~12)	중(13~15)	고(16~20)	평생교육시설	계
입학생	283	136	76	6	501
중도탈락률(%)	3(1.1)	22(16.2)	11(14.5)	2(33.3)	38(7.6)
졸업생	86	31	35	2	154
평균탈락률		1.1~1.7	1.1~1.9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조사 자료.

4. 낮은 학교 성적이 가장 큰 고민 (※ 자료: 김미숙 2003)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것	20(58.8)	28(90.3)	48(73.9)
말씨가 다른 것(북한 사투리)	7(20.6)	0(0.0)	7(10.8)
어려운 가정 환경	1(20.6)	0(0.0)	1(1.5)
외모(키, 얼굴, 몸매 등)	3(8.8)	2(6.5)	5(7.7)
친한 친구가 없음	2(5.9)	1(3.2)	3(4.6)
가정의 불화(부모형제의 다툼, 이혼 등)	0(0.0)	0(0.0)	0(0.0)
선생님의 무관심	1(2.9)	0(0.0)	1(1.5)
계	34(100.0)	31(100.0)	65(100.0)

V. 외국의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1. 미 국

□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불법이민자 정책과 관련됨. (불법이민자의 경우, 서비스 수급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움.)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출산과 보호, 자녀의 양육, 교육 등 사회복지 권리가 보장됨.

2. 프 랑 스

□ 1981년 이후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선교육지대”(ZEP: Zone d'éducation prioritaire)가 시행됨. 공화국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신입교사 지원, 모든 교사양성소(IUFM) 교

육 참여 등을 통해 교사 지원 활동을 강화함.

3. 독일

-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증가를 예외적 현상, 단기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과정에서 중요한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족 프로젝트”로 보고 장기 대책을 추구함. 독일어 교육은 물론 출신 국가의 언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내의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함.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합을 저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 대중매체에서의 고정관념화 등을 경계함. (주거 통합 대책, 어머니 단체 등)

VI.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제도

1.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대책

-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강화
-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
- 교원연수 및 장학지도 강화

2.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 한국어(KSL)반 운영, 우수교사 유치 등 학교내의 교육지원 강화
-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 및 국제이해교육 강화
- 민간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가칭) 운영 : 학교교육 준비·학교 적응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정보화 지원
-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새터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

- 새터민 자녀를 위한 특성화학교 및 교육연구지원센터 설립 지원
- 일반학교 내 교육지원 강화 : 밀집지역의 특별학급 운영 검토, 새터민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
- 일반학교 단계 교육 지원 강화 : 전문 교육인력 양성 연수

VII. 전문가에 의한 교육 지원과 장학

1. “장학” 단위의 개념 전환

- “장학” 개념의 확장
 -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장
 - 문화, 언어, 직업, 정체성 교육에 초점
- “장학 대상”의 재정의
 - 해당 아동,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환경 전반의 개선
 - 다문화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 및 그들의 교사, 가족 포함

2. 다문화의 적응과 수용

- 학교 차원
 - 방과 후 특별 교실 운영
 - 한국어반 운영
 - 외국인(부모)와 함께 하는 다문화교실 운영
 - 밀집 지역의 경우 상담실 설치 운영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

- 다문화 이해 및 존중을 골자로 교육 과정 보완 시행
- 세계 시민 교육 과정 도입과 시행
- 교과서의 확장과 보완 (특히 사회과, 윤리과 등)

3.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반 연구 활성화

관련 인력의 전문화

- 현직 교원
- 장학 지도
- 전담 교원 (교과 및 상담) 양성

기반 연구 활성화

- 기초 자료 수집
- 정책 구상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교육 자료 연구 개발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 11차 시민사회포럼.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 윤희원 외(2006),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 정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 (외국 자료 생략)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사업 방향

임준희(교육인적자원부)

-프리젠테이션-

다문화 가정 상담시 각종 상담 기법

권순희(전주교대)

I. 서론

한국의 경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동안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이 보편화 되었다. 국정브리핑⁷⁾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결혼의 13.5%, 그 가운데 농어촌 남성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⁸⁾. 국제결혼 문제가 대두되고 보편화되면서 2세⁹⁾ 교육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지도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일

7) 국정브리핑 홈페이지 2006년 5월 26일자 참고.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view?r=§ion_id=mi_sec_1&id=18ccfec7dd049b238a5f4db7

8) 통계청(2006)에서 발표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에 따르면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43,121건으로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 316,375건의 13.6%에 달한다. 또 2005년에 혼인한 농림어업종사가(남자) 중 외국 여자와 혼인한 비율은 35.9%로 2004년 27.4%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치러지는 결혼의 1/3이상이 외국 여자와의 결혼인 셈이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총혼인건수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9)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출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한 동안 ‘코시안(Kosian)’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도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기 때문에 ‘코시안(Kosi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세계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2006학년도 국제결혼 가정 도우미 계획(Kosian Edu Plan) 추진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국제결혼 가정을 통칭하는 명칭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온누리안(Onnurian)’이 선정되었다. 온누리안(Onnurian)은 온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누리’와 ‘-ian’ (사람을 뜻하는 어미) 합쳐진 합성어이다(2006년 03월 21일자 전북교육뉴스 참고). 반면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에서 연구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후속 연구의 특성을 지니므로 본고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선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상담할 때 필요한 각종 상담 기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II. 다문화 상담

1. 다문화주의의 수용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상담 지도하는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외국에서는 다문화적 현실에 조용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용승(2004: 181)에서는 다문화주의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논의한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복수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에서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에서 다문화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스트 모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학문적, 정책적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개념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 다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 계층이나 소수 계층, 혹은 세대간 갈등이나 성 역할의 차이 등 미시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이용승 2004). 따라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다문화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성의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이를 대체할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다(김미윤, 2004).

근대 국가는 동질적이고 균질적인 정체성을 필요로 했다. 공식적 언어와 문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교육 역시도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화 우월의식에 기반한 주류 문화에 대한 적대적, 시혜적 동화정책은 점점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문화주의이다.

다문화 사회는 버토벡(Steven Vertovec, 199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인접한 동질적인 소수의 단위 문화가 다수의 단위 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샐러드 볼(salad

bowl)같은 유익한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사회를 상정한다. 캐슬(Stephen Castles 2000: 5)은 다문화주의가 영토라는 지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 국가적 소속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논의한다. 최근의 신다문화주의 이론에서는 영토라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있기도 하다(Steven Vertovec, 2001).

이경호(2002)는 슈와츠(Shwartz, 1995)의 주장을 인용하여 다문화교육의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주류 다문화주의(mainstream multiculturalism)와 급진적 다문화주의(radical multiculturalism¹⁰)라는 두 가지 입장 중 어디에 토대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주류 다문화교육은 타자를 자문화로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적 상황과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 다문화교육에서는 교육을 통해 타문화를 자문화, 즉 지배 문화에 포섭하기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정책이 주류 다문화교육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토착민(인디언)들에 대한 시각, 황인종, 흑인종 등 다양한 인종을 파악하는 시각도 백인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관점에 머무른다. 백인이라는 주류에 대한 비주류라는 차원에서만 각 인종들의 다양함을 인정한다. 결국 주류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문화들의 다양성은 주류에 포섭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만 인정되며 영원히 소수에 머무르는 문화일 뿐이다(김미윤, 2004: 133). 주류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들은 포섭과 동화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며, 사회의 영원한 타자로서 취급받게 된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질서를 꿈꿀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지 않으며, 최선의 경우 타협만이 존재한다.

둘째, 급진적 다문화교육은 사회적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다양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자체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급진적 다문화교육은 지배 문화 중심의 포섭적 다문화주의를 배격한다(이경호, 2002:297). 이 관점에서는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지배적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 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관점 외에도 조합적 다문화교육을 들 수 있다. 조합적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 문화가 처할 수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도 다문화 방송, 다문화 문서, 다언어, 다문화 교육을 시행한다. 소수민족

10) 김미윤(2004)에서는 같은 용어를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용승(2004)에서는 급진적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맥상 급진적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학교나 공동체에 대한 원조 또한 사회 참가의 수단적 의미라기보다는 소수문화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유형의 구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발생했던 초창기에는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주류 문화에 동일한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다문화 가정에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소수계층의 정체성은 동화정책에 의해, 혹은 지역적 고립에 의해, 때때로 제도적, 법적 제재와 소외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단지 생애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가 주도하고자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시민들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변종’이나 ‘이탈’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인정, 더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의 분출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민족적 소수 그룹에 대한 배제와 탄압, 차별과 동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이용승, 2004: 184-185). 이러한 요구는 온건한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이나 유고연방 등의 구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될 때와 같이 간혹 폭력적인 양태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실패와 자유 민주주의와의 규범적 병립 실패라는 이중의 실패에 직면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의 다민족 국가는 국민형성 혹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의 기존의 기초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요청받기에 이른다.

한국은 아직 서구와 같은 다민족 국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초창기 정책을 세우는 단계에 있다. 외국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막기 위함이다. 초창기 서구에서 범하게 되었던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20-30년 후의 우리나라 사회상을 예측하며 정책을 수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구자도 이 시점에서 정확한 정책 진단을 내리기는 역부족이다. 다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해 어떤 철학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시발점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다문화교육정책의 변화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상담 지도 정책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정치적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바라보는 입장으로는 김남국(2005)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편적 인간이나 세계 시민적 이상을 강조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국가의 배타적인 “국민”됨과 그 안에서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거주나 영주 자격보다 귀화 자격을 더 쉽게 규정¹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11) 양계 혈통을 물려받는 방법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5년을 살아야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을 이해하는 기본 소양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주체류증을 갖기 위해서는 7년을 거주해야 하고, 영주체류증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5년

근거를 들고 있다. 김남국(2005: 117)에서는 다문화 시대에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을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결과 다문화 시대에 이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내면의 가치를 지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교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인 의식도 상호 존중, 합리적 대화, 사회적 권리와 관련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박성희(2003)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문화와 상담을 논의하면서 프랑스의 법칙, 관계 문화, 빨리빨리 문화, 상담실 기피 문화 등을 들고 있다. 1900년 전반기에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 공사 프랑시는 한국인의 편지는 앞에서부터 읽지 말고 뒤에서부터 읽어야 효과적이라고 말한데서 유래했다는 프랑스의 법칙은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은근히 속을 드러내는 문화, 체면 지키기의 문화를 일컫는다. 관계 문화는 한국인은 과제지향성보다 관계지향성이 강하다는 문화를 말한다. 빨리빨리 문화는 수행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절차를 뛰어넘을 정도의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한국인의 의식 문화를 의미한다. 상담에서도 레포가 처음 형성되기 어렵지, 일단 레포가 형성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상담자에게 꺼내 놓고 빨리빨리 문제해결 되기를 요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에게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학교에서의 상담은 무언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거나 처벌당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자리잡았다.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상담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 이는 곧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반성문을 쓰거나 혼썰어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박성희 2003: 239). 게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받겠다는 말이 ‘상담’=‘치료받을 정도의 정신적 문제를 다루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것도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의 의식 문화가 있어 상담에서도 적용해야 하듯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상담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인처럼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민족이나 나라에서 온 사람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의 경우는 다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상담 전문가나 교사에게 의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경우도 교사와 상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교사와 적극적인 상담을 하고 학교 일에 참여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다.

을 더 거주해야 한다.(우리나라 국적법 2조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12조 ‘외국인의 체류자격’ 별표 중 27항 ‘거주’ 및 28의 3항 ‘영주’ 참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역시 교사와의 적극적인 상담을 요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상담 내용도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족 중국인 학부모를 둔 학생은 한국어 구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어 교육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와 교류를 하기 이전에는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상담 교사와 상담의 필요성

학교에서 상담의 역할을 위한 명확한 정체감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자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상담을 생활지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상담이 전문 상담교사만의 몫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일반 교사의 학생지도와 동일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교 상담을 전문 상담사가 담당할 경우에도 상담사를 특수 교사 혹은 미술가로 보는 견해와 교육적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보는 견해가 있다. 상담자가 초, 중, 고등학교 환경의 통합된 구성원이 되어 학생들을 지도한다거나 일반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 지도 차원에서 상담을 논의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아직까지 ‘생활지도’라고 하면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혼내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타이르는 것들이 연상된다. 하지만 원래 생활지도란 가이던스(Guidance)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가이던스의 어원적 의미는 학생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다(오인수의 2005: 11). 생활지도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 및 주변 세계를 이해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격과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켜 사회의 민주적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이시용 외 2003).

본고는 일반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상담하는 각종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부적응 행동에 따라 상담 기법이 달라진다고 논의한다.

(1) 발달 단계에 따른 상담

일반적으로 발달 단계에 따른 상담을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발달 단계보다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정 사항에 대한 상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간단하게 발달 단계별 상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 상담>

세상을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사회적 관심과 협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개인 상담 관계의 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면접과 말하는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개인상담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상담자는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가치를 탐구하고, 조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아이들을 촉진하려는 놀이, 심리극, 창조적 예술, 독서치료와 같은 활동적 기법에 많이 의존한다.(존 J슈미트 저, 노안영 역 2000: 85-86).

<중학생 상담>

중학생들의 독특한 욕구와 발달 단계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상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중학생들의 상담은 개인 상담 관계, 집단 경험, 또래지원체계, 다른 과정을 포함하는 확장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중학생들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과 이러한 지각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상담자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존 J슈미트 저, 노안영 역 2000: 92).

<고등학교 상담>

고등학교의 상담은 학생들에게 개인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 조력, 학교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에 대한 조력, 대학 정보 제공, 학급 계획에 대한 조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2) 부적응 행동에 따른 상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 학생이 존중받고 있으며 자존감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부적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 때 꾸중 대신 위로와 격려로 상담 및 지도를 해야 한다.

인간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 행동이 의도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 연문희(1997)는 아동들이 보이는 부적응 행동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주목을 끌기 위한 행동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을 받은 학생들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 관심과 주목을 끌지만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와 반대로 부적응 행동을 통해서 주목을 끌게 된다. 남들의 주목을 끌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심하게 혼나거나 꾸중을 듣게 되고 불만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꾸짖거나 혼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이면의 욕구인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② 힘겨루기 행동

2단계부터는 내가 이기나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이기나 줄다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일종의 심리적 저항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른들의 기대와 상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 때 많은 경우 학생들은 심하게 반항하거나 반발하게 된다.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회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힘겨루기 행동 역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어서 보복과 양갈음의 행동으로 악화된다.

③ 보복과 양갈음하는 행동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굴하게 만들거나 괴롭힘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이 때 공격적이고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서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가 심해지고 이 증오심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공격적,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④ 자포자기하는 행동

이 단계에 이르면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무기력해진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혼자만의 생활에 자신을 가둔다.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그리고 교사나 학부모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한다.

연문희(1997)는 부적응 행동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성격과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부적응 행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아 형성과 사회화가 되면서 부정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사회화의 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고치기를 바라기보다는 관점을 달리하여 칭찬해 줄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보거나 학생의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면서 앞당겨서 긍정적인 모습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존 J. 슈미트(노안영 역, 2000)는 21세기 미국 학교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더욱 보편화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다루고 교육과정 내에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미래 학교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경우는 동일하다.

다양한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욕구는 학생 개개인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광범위한 상담과 교육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개인적 측면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의 각종 기법과 사례

다문화 상담은 상담심리학에서 교차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다. 교차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이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미국에서의 교차문화적 상담은 주로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즉 소수민족 상담을 의미하였다(박외숙 1996: 135). 교차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나이, 사회 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상담 및 심리 치료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문제가 1973년 APA Vail conference에서 제기된 이후 미국의 상담 및 심리 치료 분야에서는 다문화 상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 상담 혹은 교차문화 상담의 이론들이 생성되고 미국의 상담학 전공 대학원에서 상담의 문화적 접근에 대한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설정되고 있다(한재희 2004: 12).

다문화 상담의 개념을 동일 민족 내에서의 문화적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의 개념으로 다문화 상담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은 교육부 1단계 연구인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 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상담 및 지도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상담 기법과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담 기법과 지도 방향을 제시할 때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avid Augsburger(1986)는 인간에 관한 세 가지 차원,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보편적 차원, 다른 사람 또는 집단이 유사성을 보이는 문화적 차원, 각 개인에게 있어서의 독특한 개별적 차원으로 구분한 Kluckhorn and Murray(1948)의 인식을 지지

하면서 특히 문화적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가지 문화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인식할 때 비로소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이해를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개인적 차원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것이 혼돈을 막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에 언어적 차원을 추가하고자 한다. 언어는 문화와 사회, 민족 얼을 반영하고, 언어를 통해 사회 문화적 제반 사항에 적응 또 그것을 습득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언어적 차원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차원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학생 신분과 일반적 사회 구성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담 기법과 지도를 말한다.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해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한국어의 부족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 문제와 다문화 학부모의 언어 교육에 관련된 상담과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다. 개인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거나 보편적인 학생이라는 접근이 아닌 개별적인 차원의 접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Tracey, Leong & Gridden(1986)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의 경우 상담에서 호소하는 문제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안계 내담자들은 백인 내담자들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개인적, 정서적인 문제보다는 교육적인 문제, 진로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시안계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관이나 이주민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원의 상담 기법과 지도의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 사회에서 토착민으로 기반을 이루면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호소하는 차원이며 한 민족이나 집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변별력을 두지 않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문화 가정의 뿌리를 인정하려는 소수 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한국 문화에 동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네 가지의 틀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상담 사례는 연구자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도한 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거쳐 연구자가 기록한 것과 교사가 기록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15명의 교사로부터 조사한 것이다. 기간은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교사가 속한 학교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지역 초등학교이다.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상담 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요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은 그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충청도 금산 지역의 5명의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면담으로 작성한 상담 사례가 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사회적 차원

(1) 집단 따돌림 지도

집단 따돌림은 보통 교사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는 ‘피부색이 다르다’, ‘말을 더듬거린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등 문화, 언어적인 적응이나 외국인 부모에 대한 면박 등이 원인이 되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 따돌림은 문제로 표면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의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

교사는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면 초조한 마음에 빨리 실태를 파악해서 즉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그 아이는 선생님한테 이르면 아이들로부터 양갈음을 받거나 더 심한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에 대해 전해 들은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뭐든 좋으니 까 얘기해 봐”라고 말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어린 학생의 경우, 특별히 표현력을 타고난 아이가 아닌 이상 교사의 애매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곤란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로웠겠구나.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몰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 볼래?” 식으로 질문한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처한 상황을 함께 괴로워해 주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랬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아이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귀 기울여 준다면 아이는 차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적지 않은 교사들이 집단 따돌림을 해결하려고 사실을 추궁하는 데만 급급한 경향이 있는데, 먼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생활 전반으로 눈을 돌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전력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 따돌림을 주동하는 아이들에게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개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아이들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출구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통을 치거나 심하게 꾸짖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조장하게 될 뿐이다. 한 사람씩 차분하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생각이 교사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을 털어 놓을 대상을 찾았다는 느낌에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차별적인 교사의 대우나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동료나 선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선별하여 청와대를 구경시켜준 사건으로 다른 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교육청에서 군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 초등학생을 상대로 청와대를 견학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 A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전교생(50명 아동 중 12명이 다문화 가정 자녀임)의 24%를 차지하였으므로 다문화 가정 자녀가 청와대 견학 간다는 사실을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B학교의 경우는 전교생 중 1명만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다. B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없는 줄 알고 지나다가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를 찾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1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선별하여 지도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행동을 요하는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과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배려도 좋은 지도 방법이다.

(사례)

다문화 가정의 자녀(온누리안)를 청와대에서 초청한다는 공문이 왔다. 그 결과 우리 학교의 경우는 전교생 50명 중 다문화 가정의 자녀 12명을 보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2명의 학생들이 청와대를 간다는 생각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부러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옆 학교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었는데 이 공문으로 인해 그 신분이 밝혀지면서 학생들로부터 “너희 엄마는 외국인이라며”라고 놀림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창 초등학교 사례)

이 사실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은 지난 19일 관내 온누리안(외국인 결혼가정)가족 및 소년·소녀가장 등 121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방문과 경복궁 관람을 통한 문화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박○순 학무과장 인솔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2005학년도부터 ‘온누리안 가족 보듬기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실시해 현재 100여세대 이상의 관내 온누리안 가족들이 이웃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5월 22일자 ○○도민일보)

신문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배려한 문화 체험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가지적 정책이 개인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다음 사례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입학 초기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파악하여 잘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학생과 달리 대우를 하였는데 이것이 도리어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사례)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전교생 앞에서 외국인 자녀들이 호명(외국인 자녀들은 손을 들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서럽게 운 적이 있어요. 자신들이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사실이 전교생에게 알려져 너무 창피하다는 말을 하였어요. 또한 그때 자신이 다른 한국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외국인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강조할 (전교생 앞에서 호명하여 창피하게 만드는 등) 필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삼갔으면 좋겠고…

(다문화 가정의 중국인 정○○어머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어머니(혹은 외국인 아버지) 나라의 말을 배워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외국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집단 따돌림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경우도 있었다.

(사례)

일본 사람 ○○은 자신이 들은 얘기인데, 자녀에게 일본 말을 가르치면, 아이가 학교에서 일본 말을 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다문화 가정의 일본인 ○○어머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짝 친구나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례)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학교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1학년 아동의 경우보다 학교 문화에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내화를 갈아 신는다든지, 책가방을 챙기는 방법, 유치원과는 다른 수업 방식과 자리 배치 등 1학년 모든 아이들이 낯설어 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이철수(가명)의 경우 습관 형성에 시간이 더 걸렸다. 이철수는 단짝 친구와 친구의 언니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아이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면 좋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교사의 태도가 학급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사례)

학년 초에 정○○는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친구들이 외국인이라고 놀리면 참지 못하고 울면서 친구들을 때리고 친구에게 심하게 욕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반 전체 교육을 통해 외국인이라고 놀리는 일이 없도록 이혜시키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 친구들이 놀리는 일은 없어졌다.

(부천○○초등학교 정○○(가명) 사례)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 학부모의 태도도 학생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방송에 나온 장수 초등학교 한 학생의 사례이다.

(사례)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수진이

하지만, 이제는 모범이 되는 학교생활로 표창장까지 받아 오게 되었다는데……수진에게 이런 변화 가져다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필리핀 엄마 레오노라! 그녀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며 아이의 친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가 하면, 필리핀 모임의 회장을 맡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안-

피부색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효준이의 경우는 학부모의 태도 역시 소극적이다. 어린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추측할 수 있다. 효준이의 경우는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정체성은 개인적 측면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

미술시간, 인도에서 온 엄마 엘삼마의 얼굴을 유독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효준이. 그림을 그리는 효준이의 표정은 스케치북 속 엄마의 얼굴만큼이나 어두운데...다른 피부색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잠간의 시내 구경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엘삼마와 두 아들! 엘삼마는 혹여나 어린 아이들이 이런 시선들로 상처 받을까봐 아직도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안-

반면에 자기나 외국인 부모 외모를 한국 사람처럼 그림으로써 자신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유아의 사례(윤갑정, 고은경 2006: 162)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논의는 또한 개인의 정체성 문제로 논의되듯이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상으로 집단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상담 지도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구별하여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동화된 모습으로 학급 내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모아서 특별 행사를 주최하는 일은 사례 깊은 결정을 요한다.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급 내에서 교우 관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2)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성 지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 문제는 가정과 연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만 지도해서는 성과가 없다.

(사례)

정○○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언어와 행동이 거칠어 자주 다툼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바른 말과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지만 하교 후에 통제가 불가능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의 말과 행동에서 수정이 되지 않았다.

거짓말하고 도벽이 있어 상담을 통하여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지만, 말을 돌리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하며 다음 날이 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부천○○초등학교 정○○(가명) 사례)

다음 사례의 경우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 사례이다.

(사례)

아이가 학교에서 불안한 모습을 가끔씩 보이곤 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의 유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가정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과 학교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을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하면서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곤 했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최소한으로 해주기 위해 엄마가 일본인이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늘 말해주곤 했었다. 엄마가 일본인이어서 영희(가명)는 우선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었고, 자연스레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엄마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와 상관없이 엄마가 영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영희와 이야기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이나 학교의 언니 오빠들에게 말하라고 교육하였다. 이로 인해 학년 초에 이러한 문제로 자주 울던 영희가 잘 울지 않게 되었으며 학교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례)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러다보니 학교 생활에서 저절로 위축되고 자신감도 없게 되는 듯하다. 다문화 자녀가 학교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는 학생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본인이 지도한 영희(가명)처럼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에도 아동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일반아동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회의 편견으로 자신들과의 의지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담을 갖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관심이든, 아니면 편견이든 이러한 생각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벽이 된다.

(○○초등학교 이영희(가명))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급 내에서의 다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은 담임교사로 인해 충분히 바꾸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한 교사(○○초등학교 이영희(가명) 지도 교사의 사례 참고)의 경험담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는 외국 동화와 우리나라 동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권순희 2006, 권순희 · 서명옥 2006 참고)

2. 문화적 차원

(1) 학습 지도

1) 받아쓰기 시험의 경우 학습의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말보다는 한글 사용에 문제가 있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 학습 관련하여 준비물(알림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준비물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여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3) 학부모가 함께 숙제를 도와주고 점검해 줘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이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돌봐주지 않으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사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함과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전화나 알림장을 사용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학생을 통해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사례)

조선자의 경우 알림장에 기입된 학습준비물이나 과제를 부모가 챙겨주지 않는 편이다. …… 조선자의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교육에 관심이 없고, 어머니는 휴게소에서 판매에 종사함으로써 늦게 퇴근하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예방주사를 맞혀야 하는 등 학생에게 문제가 생겨서 부모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겨우 연락이 되는 경우에도 답임인 내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자 어머니는 아동을 교육적인 면과 생활 태도 면에서 봐 주고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알림장의 체크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알림장보다는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학교생활 안내를 하고 있다. 알림장의 중요한 사항들은 전화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방법을 쓰고 있다.

(사례)

알림장에 숙제를 적지 않아 아버지가 과제가 없는지 답임 교사에게 문의전화를 하기도 한다. 조선족인 어머니가 현재 가출 상태… (남원 금지○○초등학교 6학년 김봉구(가명))

(사례)

제만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할 때는 전화로 많이 상담을 하였다. 제만이의 어머니는 선생님을 많이 어려워해서인지, 상담을 요청한 적은 별로 없었으며 단지 인사만 나눌 뿐이었다. 간혹 알림내용이 있거나, 말씀 드려야 할 일이 있었을 때만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경우도 많았다. 아직은 어머니께서 한국어가 좀 서투르셨고, 나 또한 어머니의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은 부모님께 알려야 할 사항도 제만이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알림장에 써주어 어머니께 전달하였으며…

(○○초등학교 2학년 전제만(가명))

4) 국제 결혼한 대부분의 가정은 생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교 행사에 부모가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하다.

5)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급에 한둘씩 있을 수 있다. 교사가 그 나라를 배척하는 느낌이 들면 아이는 상처받게 된다. 독도문제나 일본 중국 교과서 왜곡의 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와 관련된 국제적 이슈가 교육의 장에서 논의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사례는 어머니가 일본인인 가정에서 자란 이하림(가명)과 이영희(가명)가 있는 반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수업을 했을 때의 일이다.

(사례)

일본과 한국이 독도를 두고 대립하던 때에 교사가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눈물을 글썽거림

(○○초등학교 이하림(가명))

(사례)

수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로 인한 것이 많았다. 도덕 교과 등의 교과에서 나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배우거나 6·25, 8·15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교육해야 할 때는 무척 난감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일들을 말해줄 때 아이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때마다 영희는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으며 특히, 독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무척 힘들어 했었다.(저학년이다 보니 학급 아이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고학년 아이들이 영희에게 일본이 나쁘다면서 영희에게 화를 내곤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일본의 경우 역사를 가르치거나 독도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일 수 있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보다 약소국가를 얘기할 때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민족의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친다. 교사가 객관적인 정보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도해야 하겠다.

(사례)

자신에게 일본인 피가 섞였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학년임에도

역사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 했으며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업자라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로 인해 학급 내 아이들은 영희 앞에서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6) 세계 음악, 세계 미술 지도도 필요하다.

7) 국어교육, 수학교육 등 기본(기초)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 기본(기초) 학습 교육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상급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학습 기초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기초) 교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상급 학년에 진학을 해도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급기야는 상급 학교의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급 학교 진학의 어려움은 나중에 진학과 진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학습 지도는 중요한 교육의 문제이다.

특히 중국인(조선족)의 경우 자녀의 영어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중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한 중국인 엄마는 시골에서 자녀에게 영어를 가르칠 좋은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시골일수록 학원이 없기 때문이다.

8) 다문화 가정의 문화 자존감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문화 조사를 학교 교육 내용에 포함 시키도록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를 조사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2) 가정 교육

1) 국제 결혼한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2) 국제 결혼한 부모의 모국에 가 봄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키웠다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3) 농촌에 사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한 사례가 많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조언해 준다.

4) 가족 단위 위주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학생만의 상담 및 지도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

5) 국제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다문화 자

녀의 교육 문제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있다.

(3) 교육 제도

1) 취학 전 만약 한글을 배우지 않고 입학했다면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2) 농촌에 사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경우는 학원이 없어서 학습지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3)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외국인 엄마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엄마가 농촌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례가 있다. 다른 엄마와 달리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던 엄마가 제2외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4)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다문화 자녀를 상대로 한 한국문화 체험 교실에 즐거워하고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였다고 반응하였다. 여름 방학 일주일 동안 도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한국문화 체험 교실에 저학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문화 체험교실에 출석하는 비율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4) 부모 교육

1) 한국어 프로그램 마련

농사 일이 너무 바쁜 계절을 피하여 농사철이 아닌 겨울을 이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아빠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외국인인 엄마의 교육열은 크다. 그러나 아빠의 경우 대부분 자녀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다. 특히 농촌 총각이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례에서, 아빠는 교육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생의 받아쓰기와 같은 것은 한국인 아빠가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실제 사례에서 보면, 받아쓰기 지도마저도 아빠가 돌보지 않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는 외국인 엄마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단위로 교육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매 결연 방법으로 가족단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국제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이다.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 가정의 학생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자매 결연 방법으로 친구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4)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정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이나 새터민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지만, 영어권에서 유입된 외래어나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5) 안내문 마련

쉬운 표현으로 안내문을 마련하여 부모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6) 생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

3. 언어적 차원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배경은 특수성을 지닌다. 미국의 경우처럼 결속될 수 있는 소수 민족 세력은 미미하고 다문화적 배경이 혼혈인 경우가 다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말하기 듣기 등 구어 능력에 비해 쓰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사례)

엄마인데 왜 한글을 몰라?

캄보디아에서 온 촘스레이마오의 야무진 딸 지애.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지애는 아직 엄마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촘스레이마오는 어린 딸의 불만 섞인 투정에 적잖이 상처를 받지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는데...

2006년 5월 20일(토) 오후 5시 10분~6시 30분 방송 KBS 1TV “우리는 하나-코리안-

(사례)

친구들 엄마와 다른 엄마 모습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될 법도 한데 수진이 생각은 전혀 달랐다. 수진이 생각하는 엄마는 언제나 상냥하고, 맛있는 음식도 잘 만들고, 게다가 영어까지 잘 하는 세계 최고 엄마다. 학교 특별활동 영어시간에 수진이 엄마가 보조 강사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다. 지난해 여름 엄마를 따라 필리핀에 가서 놀다 온 것도 수진이의 자랑거리다. 담임교사 박여주(여·27)씨는 “엄마가 외국인이라 엄마를 대할 때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이들이 많다” 고 말했다. 박형주(57) 교감도 “이 마을에서 태어나 똑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느냐” 며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떼어서 생각하는 자체가 편견이고 차별” 이라고 말했다.

4. 개인적 차원

(1) “생략 된 모델 되찾기”를 통한 상담 치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면이 치료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 내담자가 왜, 무엇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알아내려면, 내담자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나는 무서워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이 말에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무서움의 대상이 생략되어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언어적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에는 이와 같이 생략과 같은 언어의 보편적 현상이 내재되어 있다.

내담자의 내적 경험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생략된 모델¹²⁾”이라고 부르며, 생략된 모델은 곧 제한된 행동 선택으로 나타나며 억압된 내면의 표출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현된 언어의 근원, 즉 속구조를 완전하게 표현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내담자의 생략된 모델을 그냥 받아들이든지, 생략된 부분을 내담자에게 물어보든지,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지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선택, 즉 내담자의 생략된 모델을 그냥 수용하는 것은 치료 과정을 느리고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도움을 찾기 위해 온 내담자에게 자기의 모델에서 생략된 부분을 혼자 알아서 찾도록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선택은 내담자가 말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다.

내담자: 나는 무서워요.

상담자: 무엇이 무서우세요?(누가 무서우세요?)

위와 같이 하면 내담자가 자기의 모델에서 생략되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기발견과 변화의 과정을 겪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자기의 모

12) Bandler & Grinder(1975), 김계현(2000: 119) ‘빈곤한 모델’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필자가 만든 용어임.

텔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선택은 내담자의 언어 표현에서 생략된 부분을 상담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상담자는 추측을 하거나 내담자의 표현을 해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상담자가 가정했다고 하자. 만약 이런 경우 이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도 있다.

내담자: 나는 무서워요

상담자: 이렇게 말해 보시고 그 말이 맞는지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요”라고.

내담자의 상담 치료의 효과는 내담자의 모델에서 생략되었던 부분을 되살릴 수 있는 상담자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표현에서 빠진 부분, 즉 생략된 부분을 회생시켜줌으로써 내면 세계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왜곡된 모델 되찾기”를 통한 상담 치료

사람들을 꿈쩍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일을 이미 끝난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현재 진행 중인 것들마저 자기가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 즉 과정이 사건화하는 현상에 대해 명사화(nominalization) 현상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김계현, 2000: 122).

예를 들면, 내담자가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합니다”와 같은 표현에서 ‘결정(decision)’이라는 명사는 ‘결정하고 있다’거나 ‘결정할 것이다’는 용언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결과 중심적인 표현이다. 결정이라는 명사로 표현한 것을 듣고 상담자는 “당신의 결정을 재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이지요?”라고 질문한다. 상담자의 말은 이미 끝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과정으로 재조정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결정을 변경시킨다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는 없겠어요?”라는 식으로 내담자를 일깨울 수 있다. 상담자의 메타모델식의 시도는 내담자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왜곡된 모델 되찾기”이다. 명사화 현상으로 왜곡 변환 된 것을 그것의 본래 상태, 즉 과정 동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내적 모델을 충실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되어 내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김계현(2000)에서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자기의 모델이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더

풍부한 선택 가능성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내담자는 세상에 대해서 매우 빈곤한 모델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며 그 모델이 세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까지의 모델과는 다른 식으로 행동하도록 해서 그 결과 더 풍요한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야 한다.

(3) “긍정화”를 통한 상담 치료

긍정화라는 말은 김계현(1995: 180)에서 창안된 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영어의 positive reframing을 가리키는 말로 긍정적 재구성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긍정화라는 용어로 간소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긍정적 관점의 선택과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무난할 것이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교사가 지도한 사례인데, 긍정화를 통해서 학생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 사례이다.

(사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조선자(가명)는 책가방이 자주 비어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꾸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사: “어머~ 내일 책 가지고 오면 선생님은 조선자 덕분에 행복할 거야”

그후 조선자는 아침에 학교에 등교해 교실에 오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생: 선생님, 오늘 숙제 해 왔어요. 책 가져왔어요.

교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 한 마디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사례)

2학기 때 온누리안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교사A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혹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교사A: 엄마가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그중 김동수(가명)의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반이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간에 관점의 차이를 흔히 논한다. 같은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상담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교사 자신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할 뿐 아니라 학생도 긍정화를 통해서 표현을 변화하고 태도를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4) 결손 가정

김영수(가명)의 어머니는 중국계 조선족이다. 어머니는 김영수가 5살 때 집을 나가서 서울의 모텔에서 카운터 일을 보고 있다. 지금은 노동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마을의 빈집에서 생활하며 집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면서 살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김영수(가명)는 어머니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행동이 학교에서도 나타난다.

(사례)

3월 중순경에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김영수는 친구들에게 자기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듯한 행동을 함

학교에서 가족 신문 만들기를 했는데 유치원 때(7살) 중국에 가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가족신문에 사진을 붙임. 엄마랑 어릴 때 찍은 사진도 붙이면서 자랑함.

(전북 ○○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빈 공간이 드러난다.

(사례)

아버지는 노동일로 공사장 등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는 관계로 아침에 일찍 밥을 차려놓고 나간다. 아버지는 김영수가 자고 있을 때 집을 나선다. 김영수는 알람시계 소리에 잠을 깨서 아침밥을 먹고 등교한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혼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저녁밥을 차려먹는다. 언젠가는 얼굴 여러 곳에 화상을 입어 이유를 물었더니 저녁밥을 먹으려고 햄을 볶다가 기름이 튀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내용을 듣고 마음이 아팠으며 기름에 불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알려주었다. (엄마나 아빠가 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아는 교사로서는 요리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함)

(전북 ○○초등학교 2학년 김영수(가명))

결혼 가정의 경우는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어렵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가 낮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강좌 등 학부모를 상대로 특강을 개설하는 방식이나 가정끼리 멘토를 맺는 방식 등을 취하여 결혼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6) 급식 지도

일본인 어머니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영희(가명)는 평소에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 문제가 없었다.

(사례)

평소 가정에서도 한식 위주로 된 식사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학교 급식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식사 예절도 바르고 잔반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초등학교 2학년 이영희(가명))

그러나 러시아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정○○의 경우는 채소류를 잘 먹지 않으려 하였다.

(사례)

채소류는 잘 먹지 않으려 하고 육류와 튀김, 면류를 좋아함.

(부친 ○○초등학교 2학년 정○○)

다음은 필리핀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이철수(가명)의 편식을 지도한 사례이다.

(사례)

학교 급식 중 생선구이와 스파게티만 먹을 수 있음. 설득하면 김치도 조금은 먹지만 그 외의 음식은 모두 거부 반응함……

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고향이 섬나라(필리핀)이므로 주로 해주는 음식이 생선요리이고, 한국 음식은 김치와 몇 가지를 빼고는 먹어본 것이 거의 없었다. 이철수(가명)는 토마토를 가장 싫어하고, 바다에서 난 음식들과 어머니가 직접 해 준 음식에는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다.

편식을 고치기 위해 다소 강압적이긴 하지만 모든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지도했고, 때로는 처음 보는 야채라며 먹지 않을 경우 스파게티의 한 종류나 다름 없다고 말해 주어 그 야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먹도록 시도했다. 한 번 먹어본 음식은 다음에는 조금 덜 거부했으며 생선과 스파게티 말고도 좋아하는 음식이 한두 가지 더 생겼다.

(○○초등학교 1학년 이철수(가명))

편식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정 문화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편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체질에 따라 몸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편식을 지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편식을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지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IV. 결론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는 개인의 개성과 성향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상담을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도 이 때문이다.

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자조(自助)를 위한 촉진자(Atkinson, Morten & Sue, 1989)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문제는 다문화라는 측면보다는 결손 가정적 요소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문화 자녀를 지도해 본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교사들은 계획된 다문화 교육보다는 한국인 가정의 학생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자연스럽게 학급 전체 학생들과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을 택한다는 반응이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평등함을 강조(Gollnick & Chinn, 1994)하는 내용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는 교사의 지도 역할이 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상담 기법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사보다는 또래와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동반한 상담 지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가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끌어안아 줄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개인적 특성이나 자율성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이 요구하는 집단적 정체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Singh 1994, 윤갑정 외 재인용 2006:165)

그리고 교사에게는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나라에 대한 이해 교육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그 자녀와 함께 지내는 학급의 다른 아동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권순희(2006), "문화 텍스트적 관점의 번역 동화 이해 교육", 독서연구 15호, 한국독서학회.

권순희·서명옥(2006), 창의적 표현 능력 개발을 위한 국어과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전략 방안- 문화 텍스트적 관점에서의 번역 동화 이해 및 감상 표현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3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계현(2000), 카운슬링의 실제, 학지사.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미숙(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KP 2005-6, 한국교육개발원.

김미윤(2004),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참여의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1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박성희(2003),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지사.

박외숙(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이슈페이퍼 보고서.

- 설기문(1993),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
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편, 학생연구 21.
- 설동훈(2003),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
차 시민사회포럼.
- 스와 고이치 외 편저, 오근영 역(2004), 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대화의 기술,
양철북.
- 연문희(1997), 성숙한 부모 유능한 교사, 양서원.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 오인수 외(2005), 상담으로 풀어가는 교실이야기, 교육과학사.
- 윤갑정, 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
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 이경호(2002),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한국사회과교육
학회.
- 이시용 외(2003), 초등학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과학사.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고려대학교 동아시아교육연구단.
- 이원희(2006), “학교 중심의 지역 사회 재편”, 초등 교육의 혁신 방향과 전략, 2006년
도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존J.슈미트 저, 노안영 역(1999), 학교 상담, 학지사.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소의 집단의 교육 실태와 복지 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
책포럼.
-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 한재희(2004), 한국 문화와 다문화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5, 한국목회상담학회.
- Atkinson, D. R., Morten, G. & Sue, S. W.(1989),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3rd ed.), Dubuque, IA:William C. Brown.
- Bandler, R., & Grinder, J.(1975), *The Structure of Magic I: A book about
language and therapy*, Santa Clara, C.A.:Penguin.

- Castles, S.(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From Migrant Worker to Transnational Citizen*, London:Sage.
- Dewey, J.(1934), *Art as Experience*, A Perigee Book.
- Gollnick, D. M.,& Chinn, P. C.(1994),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4th ed.), NY:Macmillan College Publishing Company.
- Singh, B. R.(1994), Group identity, individual autonomy and educ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al Studies 20(1)*, pp87-103.
- UNSW(2002), Pocket Statistics.
- Vertovec, S(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222-42*.
- Vertovec, S(2001), "Transnational Challenges to the New Multiculturalism", Paper presented to the ASA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Sussex, 30 March - 2 April 2001.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 실태

박상철(서울교대)

1. 실태 조사의 목적과 범위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계층간 통합과 문화의 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관 지원 실태를 다음과 같이 조사, 분석함.

구분	주요 업무
정부 각 부처	주요 현황 추진 정책 향후 계획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시도 단위)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추진 정책 및 업무 향후 추진 계획
민간 기구, 단체	시도별 민간기구 설립 및 운영 현황

2. 정부 각 부처의 지원 현황

- (1) 법무부: 출입국 및 체류 관리

- 주요 현황

- 여성결혼 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

- 남편이 일반적으로 신원 보증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여성결혼 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으며, 이혼에 의한 간이 귀화 신청시 전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음.

□ 추진 정책

- 2005년 이후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차 지원 대책(2005. 8)과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지원 대책(2005. 11)을 마련하여 시행
- 여성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자격 변경(거주비자→방문동거)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적취득 조건 완화

□ 향후 추진 계획

-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결혼중개업체의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결혼사증 발급 심사 강화
 -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 강화
 - 혼인파탄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 이혼에 따른 간이 귀화 입증 요건 완화
 - 사실혼 부모에서 출생한 자녀 및 그의 외국인 모(또는 부)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검토

(2) 노동부: 취업, 고용 및 훈련

- 노동부에서는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취업, 고

용 및 훈련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준비중임.

-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 여성결혼 이민자가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3)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 의료

주요 현황

- 언어소통 문제, 생활 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 소외
- 전체 여성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3.7%에 불과
- 여성결혼 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

추진 정책

-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을 제외(2005. 8)
-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2005. 12)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여성결혼 이민자를 포함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외국어 리플렛을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

무소, 공단지사 등에 배포하고,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126개소)를 통해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 향후 계획

○ 복지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이민자 자녀를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민자 가족 등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
- 농어촌 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활용

○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 2007년 1월부터 국적 취득 전인 여성결혼 이민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계획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 임신, 출산, 자녀양육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 발간·배포
-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 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증진 지원

- 건강검진 서비스 시범 실시
-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국어 건강보험 제도 안내 소책자 제공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의 의료보장도 받을 수 없는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 지원
-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여성결혼 이민자 포함

○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여러 문화권 출신의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 농촌 복지사업 관계자 대상 교육 실시

(4)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 주요 현황

-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인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 때문에 가정폭력과 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중개업체들은 남성을 모집하기 위해 모집 광고에 송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광고 내용을 게재하여 국제결혼 송출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잠재
- 한국 결혼 중개업자와 각 나라 브로커들의 위계화된 하청 구조에 의해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구축
 - 대량·속성 결혼 중개 시스템으로 인한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 침해
 -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 과도한 수수료 착취

□ 추진 정책

-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 이민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동시 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 전용 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
-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참여시 통역비 등을 별도로 지원

□ 향후 계획

-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확대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국 실태 조사 실시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
 -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5)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주요 현황

-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 비정상적인 가족 등 사회 문제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 상존
 - 여성결혼 이민자가 우리 나라의 복지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오해
- 편견과 차별이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우려

추진 정책

-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생활정보 등의 제공과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
 -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문화가이드북을 6만부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160여 개 외국인 관련 지원 단체에 배포
 -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화 예술교육, 예술 치유

시범사업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연구 실시

-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 지원,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 추진

□ 향후 계획

- 지역사회와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 지자체의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우수 사례 발굴, 확산
 -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을 친숙한 이웃으로 만드는 문화 프로그램 제공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공동체 문화 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 방안 제시

(6)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자녀 교육

□ 주요 현황

- 2006년 3월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7,998명으로, 2005년(6,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부모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고, 단이 ‘엄마가 외국인 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에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교육부가 20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 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신분 상태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2006. 5) 마련, 추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 한국의 학교 제도에 익숙치 않은 학부모들을 위하여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학생 언니·오빠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중식지원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된 멘토링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대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포함하도록 권장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 소수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해결 방안 등을 수록한 사례집(case book) 및 지도서도 개발·보급
 - 대학의 한국어학당,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장려하고, '한국어교원자격증'(KSL)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
- 단일민족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인권 강조하는 교과서로 개정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결혼이민자, 외국이 근로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원) 중 일부를 지원
 -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06년 RHRD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살기' 시범 사업을 실시.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교육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그 학부모(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전체에 대해 가족상담 및 교육도 하며 '가족 캠프'도 마련
 - 현재 대구·경북 외에 전북, 강원, 부산, 경남, 대전 등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프로그램 실시 예정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

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

-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및 대책을 알리기 위해 시·도청 및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사 연수를 담당할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3.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

(1)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운영 목적: 다문화 가족의 일원이 가족 간의 관계 증진을 통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 한국 생활문화 체험
- 정보화 교육
-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 각종 복지 프로그램
-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2) 광주광역시

- 복지여성국에서 관할 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 육성 및 상담 사업'에 다문화가정 지원을 포함시켜 운영

(3) 경기도

- 경기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해 오고 있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2005. 5~2006. 11) 실시
 -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정체성 회복,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한글교육, 문화교육, 생활경제·법률상식 교육, 부부캠프 등
-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마당 축제”라는 제목의 종합 문화 행사 개최
 - 문화공연 마당, 문화체험 마당, 전시 마당, 정보 마당 등의 내용 항목 아래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과 편견을 벗어냄으로써, 국적과 인종과 성별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하는 교류의 장 마련
 - 생활예절, 언어관습, 한국요리 실습, 공공시설 견학, 문화유적 탐방 등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포함
- 수준높은 정보화 사회인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등 마련
- 다문화가정 자녀를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교육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추진
- 공무원 도우미(Foreign Friends Helpers) 발족,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를 찾는 외국인들의 생활 및 관광 지원

(4) 강원도

□ 다문화 가정 주부들을 위한 교육 지원

-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하여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
-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외국인 주부 생활 안정 지원'을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총괄

(5) 충청남도

□ '2006 국제결혼가정 행복꾸미기' 시책 사업 추진

- 우리문화체험마당
 - 민속·생활놀이 배우기, 다도 및 도예 체험 등
- 다문화체험마당
 -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국가별로 전통의상 소개와 음식 시연
- 부대행사(나도 한마디, 국제가정 4행시 등 벽 설치) 등 한국인과 이주 여성의 다양한 문화의 대결합 등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편성

□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회의 주최

- 지역내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다른 지역과 연합하여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정책 마련을 위한 회의의 성격과 더불어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역내 공무원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기회 마련

(6) 충청북도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 ‘여성발전센터’가 관장하여 문화의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빈곤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착을 지원
- 가정폭력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 등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홍보

(7) 전라남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화합 도모 행사 개최

- “다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축제(2006년 9월 영암)” 등 다문화가족, 사회단체 및 후원자가 참석하는 화합 도모 행사를 주최함.
-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가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분위기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도모

여성가족부 주관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협력

- 언어소통, 자녀교육, 의료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 NGO와 연합하여 지원 정책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임.

다문화 가정 여성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수혜자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문자원봉사교육

-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에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한국생활의 지혜와 요령을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도우미 전문교육과 현장체험교육

□ 다문화 가정 부부 공동체 훈련 실시

- 외국인 주부들의 문화적 충격완화와 지역문화의 조속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을 실시
-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교육 실시
-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 적응만을 강조하지 않고 가족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법과 지지 요령을 교육함.

(8) 전라북도

□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가족 지원

-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지원 지역네트워크 사업
-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사업: 문화·사회 적응능력 향상, 언어(한글)교육, 문화탐방, 부부교육, 임신과 출산 교육 등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운영: 2개소
- 외국인 여성 주부대학 운영
 - 대상: 도내 거주 외국인여성 대상
 - 교육내용: 한국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한국어)교육, 외국인 여성이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문화 이해 교육

전북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예비·결혼초기·장애인·농민 부부 및 결혼이민자 부부 등의 평등가족관계 증진
교육 및 상담 강화 추진

(9)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사업’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리 업무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개소(창원, 김해)

- 가정상담사업: 1,642명

- 가정생활교육사업: 1,972명

- 가정생활문화사업: 35,517명

- 가족지원네트워크 사업: 9회

○ 건강가정사업(‘06년 신규사업): 20개소

○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리(‘06년 신규사업): 20개소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리 사업 추진: 20개소

○ 국제결혼가정 생활실태 및 사회복지욕구 전수조사

○ 한글·문화교실 운영

○ 부부·가족교육 및 캠프 운영

○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 수시(상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활용)

결혼이민자 대상 각종 문화 행사 지원

(10) 경상북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 적응 문화 행사 지원

○ 우수 자원봉사 단체 및 프로그램 표창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문화 적응과 자녀학습 지도력향상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지원

※ 전국 최초로 “농촌 이주여성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국제결혼의 보편화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문이개 쇄도하기도 하였음.

□ 외국인 주부 지원 사업 추진

-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주부를 대상 “대모(godmother) 제도”, “외국인 주부 한글 교실”, “행복만들기 부부캠프” 등
- 이주여성의 입국기간에 따라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

4. 시·도 교육청의 지원 현황

(1) 서울시 교육청

□ 다문화가정 자녀 국내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 문화 체험 캠프’

- 대상: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초등학생 80명 (몽골 28명, 일본 39명, 필리핀 3명, 중국 2명, 파키스탄 2명, 아르헨티나 2명, 뉴질랜드 2명, 러시아 1명, 태국 1명으로 총 80명)

○ 기간: 2006. 7. 24(월)~7. 26(수)

- 내용: 시청·경복궁·승례문·남산·유람선 승선·63빌딩 등을 돌아보면서, 전문가의 설명으로 서울의 자연과 생활모습의 특징을 익히고, 민속촌 체험학습, 도자기 체험, 별자리 관찰 등 2박 3일 동안 다양하고 폭넓은 한국 문화를 체험함.

(2) 인천시 교육청

다문화 가정 가족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다문화 가정 유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인천시여성문화회관의 ‘꾸러기 온누리안의 희망 걸음마’
-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상 한글 교육 및 생활체험 프로그램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마음열고 다가서기!!’

다문화 가족 대상 한국어 교실 개설 운영

- 강화교육청,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등에서 각각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주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어 활용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한국문화 현장체험 학습, 평생교육 어머니회와 연계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교원 연수 강화, 사이버 상담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임.

지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한글·문화교실’ 강좌 개설

-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김명래)이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천지역에의 취업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일반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말과 글, 전통문화와 사회전반에 대한 지식의 습득할 수 있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음.
- 1차적으로 영어권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

(3) 부산시 교육청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개관: 독서릴레이정거장(쌈지도서관)

- 부산아시아평화인권연대는 아시아평화인권연대 교육관에 소규모 도서관 개관
 - 부산일보사와 부산시교육청, (사)범국민독서운동본부 공동 주관
 - 이번에 개설된 23호점은 종전 부산시민들을 위한 것들과는 달리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
 - 한국어 책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그림책과 동화, 신화와 관련된 서적 등 다양한 서적 수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아시아 각국어로 쓰여진 장서 700여 권을 보유
 - 다문화가족과 일반 시민이 함께 어울려 독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차별과 편견을 던져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부산시 교육청은 기존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교육복지종합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4대 영역(저소득층 교육안전망, 낙후지역 교육안전망, 소외계층 교육안전망, 지역사회 연계 교육안전망) 32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분야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 다문화가정 외국근로자 자녀교육을 위한 아시아공동체 대안학교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지역사회 연계 교육안전망으로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복지공동체 운동인 '희망의 사다리운동'의 확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진료를 위한 초등 방과후 학교 무료진료교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4) 광주시 교육청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원연수회 실시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 및 각급학교 교감선생님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연수회 실시
 - 유·초·중·고등학교 교감(원감), 다문화가정 자녀 담임교사, 다문화가정 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약 450여명이 참여
 -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 '국제결혼 정착 사례',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사례', '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의 강연 및 발표

□ 다문화가정 남도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사업, 한국어교재 및 취학전 학교생활 안내 자료 발간 및 보급, 다문화 가정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생적 교육연구회 조직 지원, 다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과의 자매결연 권장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예정

(5) 경기도 교육청

□ 외국인근로자자녀 특별학급 설치

- 안산, 시흥 지역에 각 1학급 씩 설치 및 운영
-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목적임
-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인권 및 교육권 차원에서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언어, 교과, 학교생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 대학생 멘토링 협약을 통한 교육 안전망 구축

- 학기 중에는 방과후에 대학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는 고향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귀향 멘토 활동 등이 주 2~3회 실시됨.

- 대학생 멘토링을 협약하는 대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장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학생에게 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하게 되고, 도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이 우수한 대학생들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초등 보육 프로그램 보조,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보조, 학습부진학생 지도,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학교도서관 운영 보조, 외국인근로자 자녀 한국어 지도 등의 활동
- 귀국 학생 조기 적응 프로그램 ‘함께 배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시
 - ‘함께 배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책자로 개발, 초등학교에 보급
 -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특별 학급이나 상설지도반이 아닌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때 좀 더 쉽게 지도할 수 있도록 편성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용인 교육청 주관 ‘느티나무 학교’ 등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방과후 교실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교사 활용,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육 행사 기획 및 장학 자료 개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예정

(6) 충청남도 교육청

- 다문화 가정 자녀 및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독서 논술 캠프 및 과학 축제: 지역 내 대학교, 학회와 결연을 맺어 교사 지원 받음.
 - 국어교과와 관련이 깊은 독서 및 우리풀, 전통 도예 체험 등 체험형 논술
 - 과학교과와 관련하여 로켓발사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목도모활동 등 폭넓은 체험기회 제공

- 외국인 한글교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네팔, 태국, 몽골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내용: 간단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등 한글 지도와 지역 문화유적지 견학 및 체험

- ‘우리는 하나, 코시안 스쿨’ 역사 교육: 천안교육청
 - 독립기념관과 함께 전시관 관람과 태극기에 대한 수업, 공주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역사를 주제로 한 공연 관람의 프로그램 운영

□ 한국문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천안교육청이 충남평생교육원과 공동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60명과 학부모 15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컴퓨터, 독서 미술활동 등의 과정 운영
- 일본과 중국, 미국, 프랑스 등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1-4학년들과 어머니를 대상

□ ‘방과후 학교’ 개설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태안군과 태안교육청의 경우 ‘2006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과심화 프로그램(외국어교육, 논술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행복학교, 관광가이드 교실 등 5개 분야에서 24개의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향후 ‘영어 캠프’ ‘수리탐구 축제’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자료 개발, 영어교육에 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해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추진 예정

(7) 충청북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다문화가정(국제결혼이주민) 자녀 체험캠프 후원

- 대상: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 내용: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동체 훈련, 국가별 미니올림픽, 엄마나라 문화 익히기(노래자랑, 민속춤 경연, 음식 만들기 등) 등 가족간 친밀감 형성 프로그램과 한국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교육 등으로 구성

‘다문화 다국어 교실’ 운영

한국문화기행 웹 사이트 운영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20개의 전통 문화를 주제로 구성된 한국문화기행 웹 사이트를 운영

교재 발간 및 배포

-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 제작
-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3권과 교사용 지도서 1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CD로도 제작

다문화 체험 동아리 운영 예정

- 목적
 - 결혼이민자 주부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실시
 -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교육격차 해소
 -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다양한 다문화(Multi-cultuer)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기본적 의사소통능력 배양과 사교육비 경감

○ 내용

- 결혼이민자 주부 활용을 통한 농산촌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초등 영어교수법 학습
- 결혼이민자 주부 활용을 통한 다문화 이해 체험 교육의 활성화

(8) 전라북도 교육청

□ 국제결혼 가정을 통칭하는 명칭 공모

- 온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온누리’와 ‘-ian’ (사람을 뜻하는 어미) 합쳐진 합성어로 ‘온누리안(Onnurian)’으로 선정.

□ ‘온누리안 도움 계획’ 수립하여 국제결혼 가정 전담팀 구성

- 2005년 11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직원들로 팀을 구성
- 도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 680여명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 국제결혼 가정 자녀 신입생 입학 전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 언어: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내용: 학교 생활, 준비물, 과목별 학습 안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첨부 파일 참조 (발간: 2006년 1월 19일)

□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홈페이지 개통

- 주소: <http://onnurian.jbe.go.kr/>

- 내용: 알림방, 대화방, 공부방, 자료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나라 14개국의 대사관 사이트에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국제결혼 학부모들이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거나 생활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였음.

□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및 문화 행사 개최

- 국제결혼 가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 안내와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 국제결혼 가정의 사례, 코시안 학생을 지도 사례 발표

□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 ‘나, 너, 우리 하나되는 나눔교실’ 운영: 방학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우리 문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마련됨.
- 주요 사례: ‘모두가 하나되는 나눔교실 온누리안 초등학생 자녀 여름방학 대안학교’ (완주교육청 주관)
-우리말 교육, 학부모와 함께 하는 우리문화 체험 현장학습
- 취학 전 자녀와 가족들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과 문화 격차에서 오는 애로를 해소하고, 온누리안 가족들의 생활적응 능력 향상과 교사와 학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자녀와 어머니들 대상 교육 실시
- 진안교육청과 순창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정교사가 5개월간 28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대한 지도와 가정 상담을 통하여 미취학 자녀 지도를 실시

- 글로벌 에티켓 교재, 한글교재 개발, 국제이해교육연구회 구성 및 교원 연수,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단위학교별 관내 다문화 가정 ‘학부모사랑방’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예정

(9) 제주도 교육청

- 제주학생문화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함께 취약 계층(저소득자, 저학력자, 장애우, 노인, 국제결혼 외국인 및 자녀, 기타 소외계층 등)에 대해 자활 기회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함.
-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과정을 운영

5. 민간 단체의 지원 현황

- 지역별 분포표

지역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 (대전, 충청도)	영동,영서권 (강원도)	호남권 (광주, 전라도)	영남권 (대구,부산,울산, 경상도)	제주권	총 계
단체수	37	7	0	2	13	1	60

□ 설립주체

- 설립 주체는 90% 이상이 종교단체이며, 기독교 계열(기독교와 카톨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민간단체 부분과 공공기관이 공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조가 공개적,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설립주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기관들도 있었음.

□ 구성/인원(단체의 크기)

- 소규모의 단체에서부터 조직화된 대규모의 단체도 존재하고 있음.
- 단체의 크기가 불분명한 단체가 많음.

□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빠짐없이 있었음. (단, 의료전문기관 등을 제외)
- 상담프로그램을 노동, 인권, 문화, 가정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음.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확산되는 움직임이 보임.
- 봉사자를 통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거의 대부분의 일반단체들은 전문가나 관련자 소수와 종교계나 일반의 봉사자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6. 정책 제언

□ ‘지원에서 투자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관련 업무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소모적 지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임.
-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정책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함.

□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조정 기능 확대

○ 정부 차원

-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는 어느 한 중앙부처가 관장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유관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한 세부 과제의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조정, 감독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다문화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정책 및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 차원

-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도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중복 개최하는 현상이 나타남.
- 시·도 차원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간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정책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설립

- 다문화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 센터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단체이자 실질적인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다문화관련 예비 교사 교육 및 현장 교사 연수 기능을 수

행함

- 이 센터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기능도 수행해야 함.

□ 장기적, 체계적인 지원 대책 강구 필요

- 정부 부처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만,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경우에는 장기적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보다는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일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관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가정”의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다문화 가정’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정, 국제결혼가정을 의미하는데, 장차 새터민, 해외공관 자녀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외교관 등 해외공관 근무자 자녀의 경우, 그 성장 배경이 일반적인 국내 가정 자녀들과 다르므로, 이들도 다문화 가정 자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주한 외국대사관, 재외 한국대사관의 관심과 노력 촉구

-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한 외국대사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시 다문화관련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협력 요청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법적 차원의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지원도 강화

□ 유관 부처의 관심 촉구

- 현재는 교육부, 여성부, 문화부, 법무부, 노동부 등에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예컨대 현재 다문화 가정과 큰 관련이 없는 관련이 없는 국방부의 경우, 수 년 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병역의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 시대의 자녀 교육

-독일의 한독가정의 경우-

성상환 (서울대 독어교육과)

1. 들어가는 말

이 발표문은 최근 한국의 국제화와 더불어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한 최근 국제결혼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상황에 비추어 이 시대에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독일을 통해 찾아보는데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과 동질문화를 가졌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자부심까지도 가졌었고 이러한 신념은 일선 학교의 교과서에까지도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민국이 아닌 한국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내의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시장의 수요가 생겼고,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결혼지형의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이 아닌 독일이 2차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과 그들의 정착, 그리고 이들의 자녀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발표문에서는 우선 한인노동자들, 즉 광산근로자와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와 그리고 이들이 이룩한 전통적인 한인가정들과 독일인들과 맺어진 한독가정들의 정착과 자녀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역사적 배경

1958년 이후 한국과 독일의 재 수교이후 한국과 독일정부사이에 진

행된 경제개발, 기술지원문제와 한국전 이후 전후 복구과정에 대한 독일의 개발지원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 한국의 근로자들 즉, 광산근로자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다른 노동인력들이 독일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본인은 최근 독일연방문서보관소들, 연방외무성정치 문서보관소 등의 공식적인 자료들과 교민들을 통한 다양한 구술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재독 한인사회 이민사는 50년대의 소수의 유학생들을 제외하면 60-70년대에 정부 파견 광부들과 80년도까지 파견이 이어진 간호사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현재 재독 한인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나아가 한독 문화교류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 조직들을 통해서 독일사회에서 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재독 이민 1세대인 이 분들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재독 동포사 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57년 2월 한국 정부는 54명의 한국 학생들을 독일의 기술 분야, 특히 화학분야의 회사에 보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가능성을 서독정부에 최초 타진했으며, 10명의 실습생이 독일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1959년까지도 성사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코블렌츠의 연방문서보관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전 후 원조기관에서 일본의 모델을 따라 서독정부를 접촉 한국광산 근로자들의 파견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파독은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동안 광부들과 간호원들에 대한 기록들은 개인차원에서나 교민단체 차원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권이중 교수가 집필한 “교수가 된 광부”나, 국내에서 “이제는 말할 때가 왔다”라는 제목아래 진행되는 개인수기 모임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독일 전체 이주민 차원에서 “40년의 타향살이” 라는 주제로 전시회들이 열려 좋은 반응이 있었고, 이주

민 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 각국의 이주문화가 상실되기 전에 수집, 보관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때를 같이 하여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004년에 해외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문서자료 수집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의 책임자가 공동집필한 재외동포재단 간행 유럽한인사(2003년)에도 독일 부분에 동포사회에 대한 장을 마련해 기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술 자료에 대한 수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술과 비디오 자료는 디지털 시대에 사료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활용 가치나 교육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독 한인 1세대들인 광부로 일하신 분들은 후유증인 진폐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벌써 세상을 뜨시는 분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육성과 모습을 담아두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현재 한국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풀어가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에는 독일 코블렌츠의 연방문서보관소의 한인정착관련 기본 자료들도 보충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연구대상자들의 선정에는 크게 3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먼저 지역별로는 독일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심장역할을 담당한 석탄, 철강 산업중심 지역이요, 한국 광부들과 간호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견되었으며, 현재 재독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루르지역과 라인란트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인터뷰대상으로서 가능한 한 광산근로자나 간호사로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으로 이적하신 분들을 포함하며 선정했다. 나아가 가족사항과 한인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다양성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지는 두 직업군인 광부와 간호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물론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상이한 경험

을 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두 직업군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독일의 한인이민사는 60-70년대에 파견된 광산근로자들과 간호사들이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면서 시작된다. 구술자들의 경우 저마다 다른 이민 배경, 사회적 경험, 가정생활 (한-한, 한-독), 자녀교육, 모국과의 관계, 그리고 독일사회에서의 교류를 보여준다. 그 만큼 이민사는 개인마다 다양할 뿐 아니라 나라나마 독특하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은 이민사와 한국현대사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로 이민사가 정리되면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해외동포들과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현재 한국의 외국인 노동 문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독일 한인사회는 이미 70대에 접어드는 1세대 교민들과 2세대 간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광부와 간호사가 대다수였던 1세대에서 교포2세대들이나 회사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왔다가 정착하는 2세대 교민들로 주류가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전환기에 크게 대두되는 것이 세대 간의 정체성 문제라고 본다. 1세대들은 비록 독일국적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고 있으나, 2세들의 경우는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선 1세대들의 역사가 빨리 정리되는 것이 2세대들의 정체성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민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의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다.

한인 1세대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아 나섰다. 멀리 이국땅에서 피땀을 흘리며, 눈물 젖은 빵도 먹어야 했다. 광산근로자로 오신 분들은 탄광막장에서 갱목을 잡고 울기도 하고, 간호

사님들은 번기를 청소하며 자존심을 꺾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고향의 부모 형제들의 생계를 위해 송금했고, 그것이 오늘 한국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간호사들은 산업국가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노인들을 동양적인 미덕으로 위로하고 돌보는 여유를 보였다. 이들이 독일인들의 마음을 얻고 친절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과 이상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신 분들은 독일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도 달성하고 물질적 풍요도 누리며 이제 노후를 즐기게 되었다. 높은 교육열로 2세대들을 대부분 대학에 보내서 그들이 이제 독일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분들의 40년의 이국생활은 땀과 눈물의 역사이면서 꿈과 승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의 역사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독일의 한국교민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다문화환경에서의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들이다. 본래 이 인터뷰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6가정대만 총 18시간의 동영상 분량이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생략하고 독일남편을 만난 어느 한국인 간호사출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교육과 독일에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느 한독가정의 자녀교육이야기

(독일에서의 인터뷰 내용. 2005년 7월)

- 3.1. 간호사를 휴직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소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 첫 애 둘을 키울 때는 참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부모님이 전수해 준 것을 받아갖고 갑자기 애를 낳고 한국같이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고요.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까지는 정신없었어요. 큰애들은 독일에
살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어교육도 안 시켰습니다, 큰 애들이
김나지움(독일인문계중고등과정)에 갈 때까지 애들 둘에만 집중했거
든요. 조금 늦게 셋째 애를 낳았는데 송이가 89년도에 낳거든요. 그
때부터 저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어서 애한테 이중 언어를 시켜야 되
겠다고 생각되어 송이가 3살 때에 한글학교에 입학시켰어요.

→

→ 3.2. 그 때부터 한글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교장 선생님도 하
셨지요?

→ 송이가 3살 때 한글학교에 가니까 그 해에 재무부장님이 일을 하시
다가 힘이 드시니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재무를 맡아 달라
고 해서 돈 계산하는 것은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다른 일은 못하니
까 재정만 맡겠다고 기꺼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해보니 재정이 모자
라고 크리스마스때 한글학교에 가니 하우스 마이스터 (건물관리인)에
게 400 마르크를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 사람하고 같이
사니까 왜 학교건물관리인에게 400 마르크를 줘야 되느냐 물으니까
우리 애들이 기피고 살기위해서는 그냥 돈을 찢러 주는 게 낫다.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이랑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학교건물 관리
인은 시의 팔이고 다리고 눈이다, 이 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면 우리
가 학교에서 떠나야 하니까 돈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줘
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독일 시청에서, 그 때 독일 경제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두
이스부룩에서 한글학교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시에 가서 협상을 해
서 학비는 우리가 선생님은 우리가 살 테니까 교실만 공짜로 달라 그
렇게 해서 학교를 유지해 오셨는데 갑자기 시 교육청에서 갑자기
8,000 마르크 교실 임대료를 내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000 마르크 정도 선생님 보수가 모자라는 상황에
학교소사한테 400 마르크 돈 줘 가면서, 시교육청에 8000 마르크 이
상을 어떻게. 뒤이스부(Duisburg) 같으면 도시가 노동자 한인들이 모
인 지역이니까 육성회비 25 마르크인데 그것도 많아서 학생들이 학교

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모씨 가족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내가 보니 이렇게 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얘기가 돼서 시에 가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편지도 내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 교장 선생님이 펄쩍 뛰며 전부다 반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나마 빼앗기는 데 우리가 돈을 더 받아 내자는 데모도 반대하고 편지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원래 고집이 좀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자기네가(독일인들) 우리 학교 돈을 대줘도 대줘야 되는데 교실 쓰는 것까지 돈 달라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시 교육청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나중에 자꾸 전화하다 보니까, Dr. Noll이라는 모국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일 년에도 3000 마르크가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학습발표회에서 부모님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인데, 이 지역은 한국에서 광부, 간호원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월급도 줄어 들고 실직자들도 생기는 그런 하는 상황이었던거거든요. 이 모국어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다. 이 애들이 커가지고 독일과 한국에 한국 사이에 다리가 될 아이들이고, 크게 사회에 이바지할 애들인데 너희 독일 정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어야 된다. 그 분도 이해를 하시고 일단 주정부에 같이 신청하자. 그렇게 편지를 내면서 관청으로 이분이 편지를 내 주었어요.

→ 그래서 교실 사용료를 신청해냈다고 하니까 교실 사용료를 안 받더라고요. 선생님 고용은 안 됐죠. 일단 교실은 공짜로 쓰게 하고 그리고 학교건물관리인에게도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돈을 안 주기로 했는데, 이 건물관리인이 돈을 안 주면 강당문을 열어 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학습발표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에 자기는 그 돈 400 마르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 문을 열어 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에 다시 전화를 했죠.

→ 그런데 그 때 소사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있어서 SPD (사민당) 모임이 이 도시에서 열리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건물관리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기회라고 우리보고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웃 한국 분하고 저하고 증인이 되어서, 고소는 시교육청에서 관령인을 고소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분은 재판 받고, 받아간 돈, 학습비, 육성회비 장부 갖고 가서 다 보고를 해서 이 사람에게 나중에 벌금 물려서 그 돈은 동구권에 가난한 아이들 유치원을 도와주는데 내고, 이 분은 다른 데로 좌천되고. 독일법이 그 당시는 15마르크, 지금은 10 유로 선에서 선물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을 하면 뇌물죄로 고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사람도 벌 받고 받는 사람도 벌 받는다. 일단 교실 사용료도 안주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일이 좀 되는 가는 구나 그러니까 좀 믿고 도와주시고, 믿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사용료와 관리인 문제가 해결 됐어요.

→

→ 3.3. 자녀는 몇 명입니까?

→ 세 명,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이름은 마쿠스 승훈, 토마스 상훈, 스잔네 송이. 한국에 가면 한국어름 쓰고, 독일에서는 독일 이름을 쓰죠.

→

→ 3.4.독일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 가 있습니까?

→ 정식으로 이중 이름입니다.

→

→ 3.5.독일 기관에서 허락합니까?

→ 그럼요. 그건 한국어름이니까, 성별이 구별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해 주었어요.

→

→ 3.6.몇 살입니까?

→ 큰 아들이 25세, 둘째가 23세, 막내가 15살 좀 늦게 났어요.

→ 3.7. 아이들에게 한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 큰 아이들 한 테는 제 의식이, 특히 아빠가 독일 사람이니까 한국에 가서 생활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애들에게 이중국어를 시키

면서 오히려 애들한테 더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일단 애들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독일 말만 가르치고, 나중에 둘째는 한글학교에 데려갔었는데 교육 방법 면에서 여기서 성장한 애들한테 안 맞더라고요. 애들이 좀 움직이고 그러면 금방 말썽 생기고 둘째는 그만 두고 셋째 아이 송이는 주위에서 한국말을 하는 다른 집 큰애들을 보고 우리집 큰애들 둘을 키우면서 내가 뭔가 잘 못했구나, 시행착오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살 때 한국에 데려 갔더니 한국이 그렇게 좋네요. 나는 크면 한국에 가서 살고, 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유치원도 한국에 가서 다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어부터 확실히 하자, 그래서 한글학교에 데려가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면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방학 때 가니까 한국은 아직 방학이 아니더라고요. 학교 가서 송이가 학습체험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니 오라고 해서 그래서 2주 정도 학습체험을 하고, 늦게 서울에서 사촌 있는데 학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오라고 해서 또 2주 동안 한국학교 다니고, 방학하면 저하고 송이하고 둘이 한국가면 한국말만 전적으로 하고 또 한국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글교육을 시켰죠.

→

→ 3.8. 한국에 가서 학습체험을 한국학교와 독일학교를 비교하면서 송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학교생활이 길잖아요. 점심 먹고 오후 수업까지 있으니 힘들었죠. 한국 사람들은 신기한 것이 있으면 만지잖아요. 송이는 혼혈아니까, 애들이 신기하니까 애들이 와서 만지잖아요. 하루 종일 길에 가도 사람들이 돌아보고, 어머 재 좀 봐! 그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가 봐요.

→

→ 3.9. 학습체험 자체는 아주 만족했나요?

→ 일상용어는 이해해도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학교 선생님이 잘 해주시고,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읽는 것은 하니까, 선생님이 재는 독일에서 와도 저렇게 읽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무리 이해 못해도 수학 같은 것은 자기가 꽤 따라 할 수 있고, 읽고 쓰기 내용적으로 100%는 못해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따라 갔던 것 같아요.

→

→ 3.10. 첫 아이들 둘은 우리말로 이해를 하나요?

→ 이해를 못하지요. 그런데 큰애는 클 때 이모가 1년 와 있었잖아요. 좀 컸을 때, 김나지움 다닐 때, 한국에 데려가니까, “엄마 나 참 이상해 한국말 하나도 안 했는데 너무 많이 이해를 해.” 저희들이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니 일상생활에서 감으로 거의 많이 이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입력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겠죠.)

→ 셋째는 이제 집에서도 한국말을 하고. 애는 한국친구 집에 가면 일부러 한국말을 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한국말 할 수 있다고. 전화하면 일부러 ‘엄마, 있잖아’. 셋째 아이 친구의 한 가정은 엄마가 미국사람이고 아빠가 독일 사람인데,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고 그 아이가 이중국어를 해요. 영어를 잘하고 독일어를 하거든요. 여자 애니까 경쟁심리가 있잖아요. 나는 한국말 잘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어서.

→

→ 3.11. 웅변대회에 한번 나오셨던가요?

→ 아니, 우리 딸은 안 나가갔습니다. 평화라고 얼마 전에 한글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의 딸인데 한국말을 잘 합니다. 송순희 씨 딸도 한국어를 잘해서 1등을 해서 한국까지 갔다 왔죠.

→

→ 3.12. 자녀들이 한독, 독한 가정인데 한국적인 것을 심어 주시려고 어떤 필요성을 느끼셨는지요?

→ 당연하죠. 제 생각에 독일 사람을 따라가려고 독일 쪽만 받아들이면 열등의식이 생기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받은 한국 사람이고 받은 독일 사람이다.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이, 서로 섞인 것이 좋은 거다. 너희들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누가 동양까지 여행을 가느냐? 동양의 문화를 아느냐? 이것은 너무 시야가 넓어진

것 아닌가요? 그렇게 좋은 걸 이해를 하고 저희 애기 아빠도 한국을 너무 좋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을 가족에서 높이니까 애들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빨리 친해지고.

→

→ 3.13. 지난번 월드컵 때 아이들의 반응은?

→ 좋아했죠. 한국이 잘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몰었죠. 한국이 잘하니 너희들이 어땠니? 너무 뿌듯했데요. (Ich war so stolz.). 독일도 응원 하지만 한국도 같이 응원하지요.

→ (질문자) 저의 경우에도 첫째아이 독일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이탈리아를 이겼을 때 바로 집으로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

→ 3.14. 선생님경우는 아빠가 독일인이니까 가정에서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이중정체성을 심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한국 피가 흐른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외모 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노랑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땐 구분을 못하거든요?

→ 우리 애들이 한국가면 모두들 미국아이라 그러는데, 독일 사회에서는 틀려요. 한국 애들이 금방 드러나요. 애들 아빠가 마네스만 (Mannesmann독일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 같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늦게 퇴근하니 애들이 제 손에서 컸거든요. 한국 엄마한테서 큰아이들이 한국아이들이죠.

→

→ 3.15.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를 기르시면서 가장 유의하셨던 점이 있다면?

→ 제 경우는 특히 아이들은 혼혈아니까 독일사회에서 소외 되면 안 되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게는 참 중요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애들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거든요. 엄마가 뒤에서 쫓아서 누구에게 ‘전화해’, 이런 식으로 친구관계를

넓히는게 많이 유의했고요. 처음에 애들 두 명 키울 때는 제가 교육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까, 한국식으로 ‘해’라고 했는데, 여기 독일에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 ‘해’, ‘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서 ‘나는 안 해’ 그러면 부모의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셋째 애 키우면서 요즘 와서 터득한 이치는,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자기 판단력을 길러서 흥미를 일깨워 주고, 내가 하겠다는 의지를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요.

→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아이들을 판단하는 저울질 하는 힘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 한 경우를 보면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독일 분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옆에 주위에 사는 것을 보니까, 우리 남편도 다른 남편들 같이 대학교를 나오고 양복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그 원을 자식한테 담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꼭 대학에 가야한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는 김나지움 같 애가 아니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김나지움에 보냈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올려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년도 안 되서 실력이 안 돼요. 욕심을 내서 가정교사를 두어야 하는데 또 안 돼요. 학교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손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 너무 한국적인 교육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제가 아는 가정에는, 남편이 의사이고 가정이 좋은 집안인데, 애가 ‘나는 대학을 가지 안 가겠다’고 해서 집을 뛰쳐나와 다른 길을 가고자 혼자서 살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

→ 3.16. 한국적인 교육철학, 교육사고와 독일에서 현실하고 갈등이 생기면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애들은 안 따라주고 또 한국도 아니고?

→ 안 따라줄 수도 있고, 따라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따라올 때 억지로 밀어서도 안 되잖아요.

→

→ 3.17. 서 선생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식으로 ‘해라, 해라’해서 더 이상 안 되는 한계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 주셨는

지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힘들죠. 제 경우에도 첫 애는 수월하게 지나가니까 사춘기에 반발해도 몰랐는데, 두 번째 애 같은 경우는 반발하는 것이 심했거든요. 갑자기 학교에서 실력도 떨어지고 진짜 제가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어릴 때 다른 한국 엄마들 같이 피아노, 바이올린 가르치고, 하키(Hockey) 배우러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다가 갑자기 실력도 떨어지니 진짜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다가 ‘너는 대학교 가지 마’ 하니까, 애는 학교는 가고 싶은가 봐요. “형은 대학교에 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배운 것은, 애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애한테 기대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해’소리를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해요.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저야 하거든요. 둘째 애는 아헨 공대에 갔거든요. 본에 있는 첫째는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 해요. 둘째는 겨우 겨우 샤인 (학점)따는 정도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머리가 안 나쁘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겠다는 의식이 들면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 3.18. 아이들의 경우에 사귀는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 우리 막내딸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김나지움다니죠 남자애들은 좀 늦었어요. 독일 사회에서 그런 면으로는 개방적인데 남자 애들이 나이가 있는데 여자 친구가 안 생기니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딸애가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OK 했거든요. 큰 애들도 여자 친구가 생겼어요.

→

→ 3.19. 아이들이 학생인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은 사귀는 것은 좋은데 경험을 축적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책임질 일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 저희들 같으면 그 때 도덕관념이 강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경험을 하면 안 되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한국 남자는 다 경험

했는데, 한국 여자들은 다 경험을 안 한 여자들인데, 한국 남자들은 어디서 경험을 했는지? 어딘지 모르게 이불 밑에서 하고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크면서 다른 성을 찾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저희들 경우를 보면 그렇게 도덕에 꼭 묶여 있었던 게 것이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되었나 싶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너무 살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순진해서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거든요. 만약 그 때 경험이 있었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살았을 텐데. 애들도 그러니까 친구도 사귀어 보고, 또 유지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너무 큰 기대도 하는 것 없이, 어딘지 모르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관이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이성교제는 너무 문란하지 않으면 건전한 교제는 발전에 좋고 결혼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공부만 일등을 해서 나중에 가족도 잘 유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잘 못하니까, 저는 처음에는 공부 일등 해주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크기를 바라요.

→

→ 3.20. 아이들은 어떤 분야로 나가기를 바라시는지?

→ 큰 애는 수학을 하니까 컴퓨터 계통이나 아니면 그런 회사로 갈 것 같고 둘째는 기계과고. 제 욕심은 돈 많이 버는 게 욕심이 아니고 어떤 직종에 가서 일하더라도 사회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을, 그러니까 살아봐서 나중에 나이가 많았을 때 내가 뭔가 잘 했다는 감정이 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

→ ■막내는 어떤 쪽으로 관심 분야는 어떻습니까?

→ 예능 쪽으로 관심이 있는가 봐요. 춤 교육학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뮤지컬에서 노래하는 것도 해보고 싶어 해요. 애는 방향이 오빠들하고 틀린 것 같아요. 수학을 전혀 못해요. 아빠도 그렇고 저도 취미가 수학인데 애는 그것을 전혀 안 닦은 가 봐요.

→

→ ■아이들의 특기 활동은 어떻게, 운동이나 악기는 뭘 했나요?

→ 큰 애들은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청소년 경연대회에 나가서 일등상도 타고 그랬어요. 초기에는 큰 애도 피아

니스트가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커 가면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이 남자 애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하려고 하더군요. 테니스를 하고 하키를 오래 했거든요. 지금은 축구하고, 치어클 트레이닝, 암벽타기 같은 것을 하죠.

→

→ 3.21. 앞으로 아이들이 한국 정체성을 유지할 텐데요, 반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 자기들이 하는 분야에서 더 잘하게 될 때 한국 회사와 교류를 할 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며 꼭 자기 독일 회사의 욕심만 안 차리지 더 공평하게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좋지요.

→ ■ 큰 아이 둘 같은 경우는 성인인데 한국에 가보고 싶어 하나요?

→ 어릴 때는 한국에 무지무지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말을 못해도 ‘준비 땅’ 그러면서 사촌들과 뛰기하고 그랬는데, 사춘기가 들어가니까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니까. 지금 다시 관심이 생기나 봐요. 우리 애들 같으면 지금 공부를 해야 하니까 큰 아이는 졸업논문 쓰니까 한국에 가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되면 한번 한국 가겠대요.

→ ■ 나중에 자녀들이 한국자매들과 결혼을 하면?

→ 좋죠, 엄마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은 부모들의 영향권이 아니죠. (결정은 본인들이 하지만 부모들이 영향은 미칠 수 있죠.) 그렇게 해준다면 저한테 좋은 일이죠.

→

→ 3.22. 그 다음에 이 쪽에서도 한글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지요?

→ 처음에는 중부지역 한글학교 체육대회였는데, 지금은 재독 한글학교 체육대회로 바뀌었죠. 96년도에 두이스북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재독 한글 체육대회로 바뀌서 했는데 그 때 모국어 보충수업을 인가 받는 작업을 하면서 장소 빌리고 그 때 진짜 운동회 잘 했어요. 경기 종목도 여러 가지 배정해서, 한국지도 그리기, 무궁화 꽃 만들기, 축구, 배구, 줄다리기, 주머니로 통 터트리기, 애들이 막 던지면 탁 터져

서 한글 글씨하고 색종이들이 내려오고 멋있었죠. 그 때 오신 분들이 3000명 정도 되었죠. 96년도에 두이스북에서 개최했습니다.

→ ■중부지역 재독 한글학교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 두이스북에서 개최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정부에 모국어 교육을 후원하는 학교인데 운동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후원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더니 주정부에서 답장이 왔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 스포츠 분트(Sportbund, 체육연맹)에다 편지를 내었더니 자기들이 담당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두이스북 시장에게 편지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주정부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예기를 했다. 문서번호 몇 번 어떻게 하고, 독일 친구가 나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주정부에서 두이스북 시로 약간 자기들의 암호가 있나 봐요. 편지 구성하는데 따라 효과가 있나 봐요. 독일 친구의 도움을 받아 두이스북 시에 신청을 냈더니 처음에는 5000 마르크를 주겠다고 하더니 운동회를 해보고 손해가 많이 나면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서 두이스북 시에서 2500 마르크 보조를 받고, 삼성이 2000 마르크, 한국 대사관에서 1725 마르크, 각 참석하는 학교에서 1200 마르크(각 학교마다 100 마르크), 뒤셀도르프 명예총영사로 계시는 스톰씨에게 편지를 냈더니 500 마르크를 기부해 해주셨더군요. 경제적인 면으로 손해를 안보고, 경기 면에서도 다양한 운동 종목을 선정해서 조직적으로 행사를 잘 치렀어요. 독일 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각 신문마다 기사가 나가고 성공리에 잘 치렀어요. 참석자가 3000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죠.

→

→ 3.23. 한인사회가 독일사회와의 관계설정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세대들은 정착하는데 너무 집중하다보니 관계는 차후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착하고 2세대들이 독일 주류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한인사회가 독일사회의 관계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윈윈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인사회가 독일사회에 기여하면 우리도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 한인사회에서 지금 한인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요즘 ‘교포넷’이라고

해서 젊은 층이 있어서, 운동회 같은 경우에 보니 ‘한우리 만남’이라 해서 저녁에 보면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술 마시고 시끄럽게 놀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참 좋아요. 그 청소년들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동질성을 못 느끼잖아요. 같다오니까 가서 친구 사귀고 집에 와서 해서 인터넷으로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좋고요.

→ 광산근로자, 간호원 노동자로 오셔서 많이 이루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이 말도 모르고 와서 이 사회에서 이 만큼 이룬 것은 많이 이룬 것이고, 2세들도 저희들은 인적자원에서 저희들도 노동자로 태어나서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기에 컸으니까. 이제 2세 자녀들 교육효과를 보면 변호사도 나오고 병원으로 가면 한국 의사들이 많아 나타나거든요. 알게 모르게 주류사회로 진입되고 있고요.

→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을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하나하나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사회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말할 수 있는 애들로 키워 주는 것이 참 중요하하다. 우리는 시에 가서 불평하고 싶어도 우리가 여기 와서 이만큼 사는데 불평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의에 안 맞는다. 너무 우리 도덕관념만 고집하지 말고 이 사회구조에 맞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으면 불평도 하고, 우리가 찾을 권리가 있으면 권리도 찾고.

→ 학교건물관리인에게도 우리 한국식으로 400 마르크를 주면 우리가 잘 못돼도 눈감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권리를 찾으면 우리가 올 수 있는 학교고, 당신은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데,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기가 죽어서 학교건물관리인한테 400 마르크를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도 기가 죽잖아요. 애들을 발표할 수 있는 애들로 키워주면 좋겠어요.

→ 독일에 특히 나치시대 때 그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난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게 발표 못하고 이렇게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에는 특히 굉장히 교육에 큰 중점이 의사표현이 (자기목소리)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 여기

사는 한국 애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그 만큼 싸워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으려면 한국인과 독일인이 실력이 똑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 3.24. 한인사회와 독일사회 관계인데요, 지금 한국 이미지가 개선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류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독일사회에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독일 사회가 그 만큼 개방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 한국인이 어느 선까지는 가겠지만, 변호사는 될지 모르지만 고위 법관이 된다는지?

→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터키사람도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TV에도 보면 아랍사람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밝힐 수 없을 때,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독일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인물이 뛰어날 때 인정을 해주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 나라 같으면 쉬리더 연방수상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나중에 늦게 대학교를 들어 갈 때 다른 길로 2차 교육을 받은 경우잖아요. 요시카 피셔 (연방외무장관)도 메츠거 (정육점)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능한 나라인데, 한국인도 독일인 국적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신사노릇을 해서 자리가 올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죠.

→

→ 3.25. 독일 사회가 그 만큼 개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서독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과거에 히틀러때 잘못 한번 실수 했던 것을 다시 안 하려고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당하고 살아온 약소국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우리’가 없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독일사람 같으면 거의 애국가를 모르잖아요. 월드컵이 두이스북에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아빠가 합창단에서 노래를 했는데 독일애국가를 부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더

래요. 안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국가중심 사고에서 지성인들은 많이 벗어나서 세계인으로 성장한 그 면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장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서 잘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3.26. 독일에서 좋은 경험하시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셔서 독일인상이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으로서 독일에 살다 보면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법률적으로(gesetzlich)하고 관청에 가면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잘 대접받아도 마지막 갈 때는 독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가는데?

→ 그것은 독일에서 오래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와서 환자 변기대고 할 때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놈의 부자나라 손해 좀 보라. 그러면서 승강기 일부러 단추를 막 눌렀거든요, 전력소모 되도록.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 달라 소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는데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을 표현해서, '나는 여기 사니 어렵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외롭다'는 소리도 쉽게 하고, 그러면 초대도 받고.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이 너무 보수적으로 폐쇄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문을 못 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독일인들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선 외국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관계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 때 우리 쪽에서 한발 나서서 '내가 이런 것이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나' 하면,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똑 같아요. 저는 지금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살아가는 도덕 선이 우리 보다 커서 그렇지 여기서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요. 어떤 면으로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진화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는 구조가 조금은 더 잘된 것 같아요.

→

→ ■그 동안 독일에서 오래 사시고, 한국에서 성장하셨으니까 양쪽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양 문화를 비교도 해보셨을 텐데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주시면?

→

→ 문화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습관이 제일 가까운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풍성한 정,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수고하는 것을 저는 어려서 못 봤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친구 분들 다섯 분들이 오면 금방 밥상을 차려오는 것들이 한 면으로는 인심이 좋고, 그 뒷면으로는 희생이 굉장히 컸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독일에서는 시간제로 해서 하나까, 물론 친한 친구사이면 갑자기 우환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도와 달라고 하지만, 대부분 계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다른 면으로는 또 편리해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오늘 안 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주니까 체면상 약속취소하고 안하고 해도 되니까 또 편리한 점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각박한 것 같기도 한데. 옆집사이에도 선들이 그어져 있으니까 간섭 안할 것은 안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는 사는데 외로워지죠. 서로 허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 특히 제일 차이 나는 게 독일 사람들은 말로 표현은 하면서 감각으로 모르잖아요. 특히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힘들었던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실컷 하다가 속상하니까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말의 문화) 한국은 눈치로 꼭 표현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것이 다 정해져 가지고 묵언으로 처신하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묵언으로 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제일 문제죠. 배워야 되는 것이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런 것은 부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 부모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다 비슷하잖아요. 다 자기가 나름대로 옳다도 생각하니까 자립 일찍 시켜야 한다고 빨리 집에서 내보내잖아

요. 감정적으로 비슷하죠.

→

→ 대신에 친척들 사이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친구와 가까이 지내잖아요. 우리는 처신해야 될 것이 싫은 삼촌, 숙모가 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면으로는 장점인 게 사람의 성격이 혼자 살면 모가 나잖아요. 그렇게 참고 하니까 모난 것이 깎이잖아요. 그게 한국사회의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대가족 제도에 살면서 성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소가족제도로 사니까 전부 자기 이익위주로 편한 데로 좋은 데로 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독일에서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죠. (핵가족제도로 바뀌고, 가족개념도 희박해지고, 결혼도 꼭 해야 되나, 이혼율도 세계 1위,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삽니다.) 여기도 이혼율이 아주 높고 가족제도가 파괴되는 경향이구요. 경제적으로 잘 살다보니까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이 커지면서 자립하려고, 혼자 잘 살면, 둘이 합치면 더 잘 살 텐데 굳이 혼자 살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혼자 살려고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남성 권위주의에서 여성들도 같이 권위를 부리려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등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

→ ■ 한국교육 심각합니다. 독일교육이 여러 가지로 한국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독일 교육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도 있고 인간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이? 그것은 교육전문가라야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부군께서 생각해 오신 것과 육아에서 계속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선생님께서 한국식 방식을 배우셨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 애기 아빠가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가정생활에 거의 관여를 못했거든요. 애들 교육이 제 손으로 이루어 졌거든요. 큰 애도 지금 이야기하기를 만약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을 받

았을까. 아빠는 방치해 두는 입장이고, 자신의 일이 급해서 자기 일만 했을 테고, 우리에게 공부해라 소리도 안했을 것이고, 음악도 안 가르쳤을 거라고 하거든요.

→ 제 경우 같으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그대로 일단 애들 공부도 잘 시켜야 되고, 제 생각으로 너는 머리도 그렇게 안 나쁘고, 남편도 괜찮고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면 잘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렸죠. 애들 두 명에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면서 둘째애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거든요. 셋째는 자유스럽게 하는데, 자유스럽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우리한테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명의 애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애들에게 후원하고 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히 자진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면,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 취미가 생기고 자기의지력이 생겨서 커서 자기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 자기가 즐겁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지금은 지성인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학교에서 일 등하면 출세고 그러는데, 지성인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인건비들이 공평하게 나뉘지면 꼭 자기에게 자질이 없는 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줘야 되는데, 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좋고 나쁜 것을 놓아 버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자기분야 손으로 잘 하면 손으로 깔고 만들고 재미있잖아요. 그런 애를 억지로 공대공부 시켜서, 억지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을 그래 가지고 서로 불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우열의식을 버리고 자녀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제가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하면 게을러지잖아요. 공산주의사회도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중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숙제인 것 같아요.

→ ■한국에는 학교교육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교육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데 사교육비가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되는데, 독일 경우에는 공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까? 학교교

육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겼죠?

→ 예 그렇죠.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사했는데, 저희 사는 길에 부유층들이 많이 살거든요. 저희 앞집은 엄마가 의사고 아빠가 변호사거든요. 아이들이 다 대학을 안 갔어요. 첫째 딸이 간호원이거든요. 남편도 간호사고. 제 생각에는 개가 머리가 틀림없이 나빠서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닐 거라고요. 두 분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애들 뒷바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잖아요. 그게 독일 교육의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변호사니까 내 아들도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항상 내 애들에게 조금 더 줘서 더 좋은 사람,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 (신분적 상승)되도록 하고자 하죠. 독일에서 보면 손일 하는 사람, 수공일 하는 사람 중에도 인품이 높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애들이 있는 그래도 받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 ■독일의 학교교육을 그대로 믿을 수 있으신 거죠?

→ 믿어야죠. (신뢰를 하면 좋은데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믿는다 말이죠) 경쟁이잖아요. 내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애들 학원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하는지 애들 도시락 두개 싸서 도서관에 앉아 있잖아요. 엄마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고 도서관에 앉아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느냐? 하루 3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도가 트일 텐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집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앉아서 지내야 하잖아요. 조카들이 ‘이모, 밖에서 그냥 친구들과 담배도 피우고 술도 한 잔 마시죠.’ 부모님들은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니까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우리 큰 애 같으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대학교서 논문 쓰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내 머리 쉬어야 되는 데 난 더 이상 못해.

→ ■실험실도 독일 학생들은 오후 3시 되면 디 나가 버리는데 한국

학생들은 붙어 있지요.

→ 대신 한국 학생들 성적은 좋은데 독일 학생들의 경우 피사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성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파사연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지능개발을 해주고 압박지르는 교육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해주면 나중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죠.

→ ■독일 교육에 만족하시는 거죠?

→ 저는 애들한테 한국에서 아는 가치관이나 욕심을 안 가지니까 만족하죠. 우리 애들이 사회보탬이 되고 자기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원이지, 아이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